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을 포함하여 -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오 현 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태운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을 포함하여 -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오현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태운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을 포함하여 -

위 논문을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오현철

오현철의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구 형 회 인

심 사 위 원 고 시 성 인

심 사 위 원 이 태 윤 인

감사의 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장 1~3절 말씀>

먼저, 석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여 주시고, 학업 간지혜와 용기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09년을 시작으로 석사라는 어려운 학업의 길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응원하여 준 우리 아내와 지금도 부쩍 자라나 고마움을 안겨주고 있는 두 아들 영석, 영진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곁에서 올바른 학업의 길을 정진하도록 지도하여 주신 이태운 지도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사를 마무리하던 중 '12년 4월 23일 아버지께서 급성 말기암으로 끝내 향년 73세로 소천하셔서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장인, 장모님, 그리고 학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처제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무리없이 석사를 성취하였습니다.

석사를 마무리하며 밝아 온 '13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새벽 창문 너머로 많은 눈이 내리며 땅 위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국가와 가정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진하겠다.

그동안 도움을 받아 왔으므로 지금부터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베풀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겠다.

국 문 초 록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을 포함하여 -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오 현 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인류에게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기점이자 현대 국제사회에 새로운 테러리즘이 출현의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 테러의 주체는 불특정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위해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핵폭탄과 핵물질 그리고 방사능 오염 등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었다.

핵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어떤 국가와 국민도 그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핵무기는 인류를 공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무기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특정목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 형태로 감행할 수 있으며 비국가 단체나 불법단체 즉, 불순세력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정치적인 폭력형태로 변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는 크게 알 카에다와 북한 그리고 국내 다문화주의 발달로 인한 자생조직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먼저 알 카에다는

9·11 테러 사건의 장본인 오사마 빈라덴이 창설한 테러조직 단체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등을 표적으로 하여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즉,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러 단체이다. 둘째, 북한은 1·2차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끊임없이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만 특수부대원과 한국을 겨냥할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불법국가이다. 현재까지 정전이 되어 휴전하고 있는 시점임으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민족 1세대가 한국으로 이민하여 그들의 2~3세대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타국계 자국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들의 2~3세대들은 법적으로 일반국민이지만 타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해 테러리즘을 도발할 자생조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대중을 목표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 테러에 대한 공포를 대중매체 수단을 통해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테러리즘을 감행시 테러목표의 무차별성을 드러낸다. 즉,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둘째,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셋째,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이 세 가지 유형 중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 사안을 결정하기는 난해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발생되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위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발생된다면 실로 막강한 파괴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방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는 방법 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심대한 타

격을 받게 된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을 가정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국가적인 공황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설령 조잡하게 제조된 핵폭탄이나 핵물질에 의해서 핵 테러리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도심지역 내에서 공황과 충격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과 제도적으로 반핵 테러리즘 관련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당시 추락한 피랍 항공기의 타격표적이 원자력 발전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어 이후 미국은 핵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의 21세기 위협은 비국가 테러용의자가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확보한다면 이는 곧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 입법화되고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11 테러 사건 이후 핵 테러리즘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테러단체들이 9·11 테러 사건처럼 항공기를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키거나,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폭발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에 환기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잉여 방사능 물질의 추적, 제거 방안 등 일련의 대테러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제2차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의의 중점은 핵군축, 핵 비확산, 핵 테러리즘의 예방 이 세 가지를 21세기의 중요한 안보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각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 핵무기 감축방안에 논의하는 새로운 국제 레짐의 장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서울 NSS의 성과와 그 한계를 확인하였고, 주요 성과로써 핵 안보를 위해 ‘서울 코뮤티케’를 각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핵 테러리즘 방지에 가장 중요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감축 이행 제시는 서울 NSS에서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각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각국이 약속이행을 하고자 하는 핵물질 감축방안을 얼마나 이행할 것인지 국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각국 정상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공조 노력의 시작이라는 시대적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주요어】 핵 테러리즘,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서울 코뮤티케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국제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테러리즘 개념적 고찰	4
1. 테러리즘 개념의 다양성	4
2. 현대분쟁 차원의 테러리즘 정의	5
제 2 절 국제 테러리즘의 출현	6
1.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	6
2.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	9
제 3 절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유형	11
1. 국가개입 여부에 의한 분류	11
2. 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14
3. 수단과 방법에 의한 분류	15
제 3 장 국제 핵 테러리즘의 현재적 위협 분석	17
제 1 절 핵무기의 위협 및 확산	17
1. 핵무기의 위협	17
2.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	18
제 2 절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	19
1. 알 카에다	19
2. 북한	20
3. 국경 없는 자생 테러조직	23

제 3 절 국제 핵 테러리즘의 대상과 목표	24
1. 불특정 일반대중	24
2. 테러 목표의 무차별성	25
제 4 절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유형	26
1.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27
2.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28
3.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30
제 5 절 핵 테러리즘 발생시 파급영향	32
1. 정치·경제적인 측면	32
2. 사회·문화적인 측면	33
 제 4 장 한국의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노력	34
제 1 절 국제 레짐과 연계한 반핵테러리즘 공조 노력	34
1. 유엔 총회의 반핵테러리즘 국제협정	34
2. 국제원자력기구의 핵확산 방지	34
제 2 절 주요 국가의 대테러리즘 입법동향	35
1. 미국	35
2. 영국	38
3. 독일	40
4. 일본	42
제 3 절 한국의 국제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노력	43
1. 한국내 국제 핵 테러리즘적 환경 분석	43
2. 한국의 반핵 테러리즘 발전방안	49
3.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NSS)	55
 제 5 장 결 론	61
 【참고문헌】	66
ABSTRACT	70

【 표 목 차 】

[표 2-1]	현대분쟁 차원의 테러리즘 정의	5
[표 2-2]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9
[표 2-3]	테러리즘의 유형별 분류	12
[표 2-4]	혁명적 테러리즘 ‘예’	14
[표 3-1]	핵폭발 시 피해범위 (20kt)	18
[표 3-2]	대남 침투 도발 사건 (1954 ~ 2010년 11월)	21
[표 3-3]	북한의 미사일 제원	23
[표 4-1]	미국의 애국자법	37
[표 4-2]	영국의 대테러정책	39
[표 4-3]	독일의 대테러정책	41
[표 4-3]	일본의 대테러정책	42
[표 4-4]	전국 시도별 인구비율 분석 (2012년 11월 기준)	44
[표 4-5]	수도권 지역 테러목표 선호도 순위	45
[표 4-6]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용년수 현황	48
[표 4-7]	통합형 대응 시스템 구축 ‘안’	51
[표 4-8]	대테러활동 기본법 쟁점	52
[표 4-9]	서울 NSS의 코뮈니케 주요내용	58
[표 4-10]	핵 안보 관련 법적 구속력 여부 국제규범	60

【 표 목 차 】

<그림 2-1>	전쟁양상의 분류	10
----------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국제사회는 제한된 지구의 영토에서 다양한 민족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살아가고 있다. 그에 따른 현상으로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빈번한 이해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와 인종마다 추구하는 문화와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상이하여 상호 충돌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되었다.

한편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출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당시 냉전시대는 외부에서 군사적으로 도전해 온 위협이 국가안보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냉전종식 이후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과 국제전쟁에 의한 폭력현상은 점차 감소되었으나 다른 형태의 갈등은 냉전 종식 이후 발생되어지는 분쟁이 점증적으로 증가되었으며¹⁾ 시대적으로 분쟁의 양상은 변모되어져 갔다.

특히 핵무기의 시대에 살면서 인류는 공멸의 위협에 직면하고 거대한 파괴력에 기초한 억제체제의 유지로 인해 전면전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초국가성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 유지(peace-keeping)’ 혹은 ‘평화 형성(peace-making)’에 커다란 위협을²⁾ 가하고 있다.

현대시대의 테러리즘은 국제분쟁의 한 형태로써 테러리즘의 대상은 사회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적 차원의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급속적인 핵 및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 테러리즘 활동에 개입할 기회와 가능성의 환경을 더욱 확대

1) 김응수(2008),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 대학원 박사논문), p.1.

2) 이태윤(2010),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경기: 한국학술정보), p.21.

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획득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적 위협이 된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테러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핵 안보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국제 테러리즘은 전통적 테러리즘에서 변모되어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적·재앙적인 핵 테러리즘의 위협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둘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핵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어떠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와 대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분석하며,

셋째, 핵 테러리즘에 대한 주요 국가 간 공조 노력과 한국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억제 정책에 대한 실효성여부와 더불어 제한사항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 현대사회에 대해 새로운 양상으로 도전하는 초국가적 국제 테러리즘을 분석하고 더불어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분야로 핵 테러리즘 위협의 가능성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방법은 각종 단행본, 학술자료, 일부 논문 그리고 각종 신문매체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본론에서는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테러리즘의 개념의 다양성과 현대분쟁 차원의 다양

한 시각으로 테러리즘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제 테러리즘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한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성격과 특징을 확인하여 앞으로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유형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과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은 국제 핵 테러리즘의 현재적 위협 분석으로써 핵무기의 위협 및 그 초국가적 확산되는 현대사회의 취약성을 문헌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관련성이 있는 발생주체를 알아보고, 그 위협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대중과 무차별적으로 테러목표가 정해져 발생되며, 국제 핵 테러리즘은 3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놓고 분석하였다. 특정 국가 혹은 어느 도시에서 발생된다면 그 과급영향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정치·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국제 핵 테러리즘은 문명발전을 거둬들이면서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신종 테러리즘이라 필자는 판단한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관점으로 본 현대사회의 취약성 및 핵의 위협 가능성에 대해 노출되어 있어 현상 진단을 위해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제4장은 국제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 레짐과 연계한 국제적인 반핵테러리즘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주요 국가들의 대테러 정책 및 수행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테러방지법’ 성립과정에서 제한사항이 있고 최근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으로 위상이 한층 격상된 한국을 목표로 한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환경 분석과 반핵테러리즘 정책 발전방향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NSS)’ 결과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 핵 테러리즘에 대해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국제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테러리즘 개념적 고찰

1. 테러리즘 개념의 다양성

테러의 어원은 라틴어인 *terror*에서 비롯되었으며 어원의 의미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태 그리고 죽음을 야기하게 하는 행위에서 기인하여 일반인에게 커다란 공포 또는 죽음의 심리적 상태를 주게 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때 테러와 테러리즘은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으나, 엄연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 구별할 필요가 있다.

테러(*terror*)란 폭력을 사용하여 남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주관적 행위로써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의 자연적 현상임에 반해, 테러리즘(*terrorism*)이란 특정 테러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포수단을 이용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으로써 대중에 대한 테러집단의 계획적 테러행위이자 조직적 폭력행위이다. 결국 테러는 테러리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 가능하며 테러는 테러리즘의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다.³⁾

테러리즘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으며 각 국가마다 학자들의 상이한 테러리즘의 정의를 주장한다. 테러리즘의 주체들의 의도와 수단과 전술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특히 테러리즘으로 사용된 폭력의 정당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와 안보적 환경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테러리즘은 국제법적인 적용기준이 없을 뿐더러 이념과 상호 간의 입장에 대한 편견적 인식과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과 위협까지를 테러리즘의 범주에 포함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⁴⁾

3) 권정훈(2012), 「테러리즘과 테러대응 시스템의 재조명」, (한국학술정보), pp.21~22.

4) 김웅수, 전계서, pp.11~12.

하지만 테러리즘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목적은 그 폭력현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공통된 인식 가운데 반테러 및 대테러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적 초석이라 본다.

2. 현대분쟁 차원의 테러리즘 정의

각국 테러리즘 관련 학자들은 다양한 학제적 정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까지도 결론되지 못했다. [표 2-1]를 통해 그 정의를 살펴보면

[표 2-1] 현대분쟁 차원의 테러리즘 정의

구 분	테러리즘 정의란?
클라인, 알렉산더 (Cline, Alexander)	“정치적 목적을 달성 위한 수단이며 저항도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는 전쟁”
윌킨스 (Paul Wilkinson)	“조직적인 살해·파괴 또는 이와 관련된 협박을 가하여 개인·단체·특정 공동체 혹은 정부를 공포의 분위기로 유도하여 테러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
텍크라 (Thackrah)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 불안정을 창출하기 위해 행해지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협박의 조직적 체계”
라퀘르 (Walter Laquer)	“한 나라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키는 현상, 지도층에 대항하거나 소수 인종이나 종교를 향해 가해지는 폭력행위로서 내란·쿠데타·게릴라 활동 등을 다른 형태의 정치폭력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슈미드, 용만 (Schmid, Jongman)	“폭력의 희생자 발생이 무작위적이고 상징성을 띠는 조직적인 전투방법”
워드로 (Grant Wardlaw)	“기존의 권위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개인·집단에 의한 폭력의 사용과 위협이며, 이러한 테러행위는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즉각적인 희생자 보다는 국가나 집단에 극단적인 공포·두려움을 유발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젠킨스 (Brain Jenkins)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폭력사용으로 위협하는 것”

출처: 권정훈(2012), 전계서, pp.23~24. 필자 재정리

학자들마다 테러리즘에 대해서 다양하고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국가마다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정치·이념·문화적인 환경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성격과 특징도 다양하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정의는 하나의 뜻으로 정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학자들의 정의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내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소로써 엄출하여 본다.

첫째, 테러리즘을 정치적 수단의 한 요소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적 체계·문화·제도 등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순응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둘째, 테러리즘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패턴은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의도된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테러리즘의 대상이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단체·정부 등 대상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상이 전개되기도 하며, 복합적으로 테러리즘의 대상에 대해 변이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불순세력에 의해 폭력행위가 자행된다는 점이다. 즉, 우발적 보다는 어느 테러조직이 감행하려는 시간·장소·테러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행위가 이루어진다.

테러리즘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필자도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수단의 한 요소이며, 불순세력이 추구하는 이념적 체계·문화·제도를 특정 대상에게 강요하여 순응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폭력 행위”라고 정의해 본다.

제 2 절 국제 테러리즘의 출현

1.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

인류가 출현한 이래 끊임없는 생존경쟁을 통해 전쟁과 테러는 부정적인

인간행위의 한 형태로 발생하였고, 인류와 함께 연속된 과정 속에서 형태를 달리하며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발전하였다.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쟁과 테러행위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변모된 계기로써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투하된 사건은 20세기 인류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가공할 핵무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차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국가가 아닌 조직적인 테러단체의 수중에 핵무기를 획득한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내세운 한 부분의 사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테러리즘 출현의 가능성은 국가존망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부합되었고, 정치의 양태가 본질적으로 변하게⁵⁾ 된 영향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상정한 전쟁분석의 패러다임은 점차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른 테러리즘도 시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초국적 테러리즘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전통적 테러리즘 행위보다는 대규모 살상 위주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테러세력들로 인해 교활한 폭력형태를 띄고 있는 뉴테러리즘이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을 비교하면 전통적 테러리즘은 그 수단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다. 지하조직세력이 총과 폭발물인 재래식 수단을 이용하여 요인암살이나 항공기 납치, 인질극을 자행하는 유형은 일반적인 것으로 테러리즘의 동기는 주로 민족주의자와 분리주의자의 이상적인 야망에서 비롯되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재정적 체계는 뉴테러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다.

반면에 뉴테러리즘은 탈냉전 이후 국가 간의 이념적 대립에 의한 갈등은 감소되었지만, 인종, 민족, 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기인한 분쟁이 증가하여 냉전시대보다 오히려 냉전이 종식된 이후 9·11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저강도 분쟁이 증가⁶⁾되기 시작하였다. 테러집단의 목적은 과거의 혁명적 이상을 추구하였지만, 현대사회는 물질적 욕심으로 변화되어 가

5) 박건영(2011),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

6) 이재은(2011),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8호, 뉴테러리즘 환경 하에서의 국가핵심 기반 보호 대상 분석」, (국가정보원), P.179

고 있다. 테러리즘의 동기 측면에서 전통적 테러리즘은 국가주의적으로 발생되었지만 뉴테러리즘은 새로운 분야가 점점 광범위해져 종교나 급진주의, 종말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다음 [표 2-2]를 통해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면⁷⁾

첫째, 추상적인 요구조건과 불분명한 공격주체로 인해 추적이 곤란하다.

둘째, 무차별적 공격의 결과는 광범위한 피해 발생으로 이어져 정치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셋째, 다원화된 그물망 조직으로 구성되어 무력화가 곤란하다.

넷째, 테러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대처가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지능화된 테러행위와 발달된 언론매체 이용으로 공포의 효과를 쉽게 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비국가 테러조직의 관점에서 테러리즘을 목적으로 한 어느 특정국가 내 접근 용이성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리즘 위협의 취약성 등 새로운 국제 테러리즘의 출현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뉴테러리즘 환경 하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 국가핵심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위기 유형을 구분하면,⁸⁾

첫째,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기준으로 금융, 교통·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석유, 가스), 원자력·핵 발전, 댐 위기 등이 있다.

둘째, 국가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가적 유물·유적, 국가 상징물, 사회적 갈등, 주요 인사의 위기 등이 있다.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위협을 기준으로 대형 민간 상업기반, 생필품 및 필수 서비스, 화학 산업, 유해 독성 물질, 심리적 공황 위기 등이 해당되어 현대사회에 대한 현재적 위협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서비스 기능에 대한 위협을 대상으로 분류하면 의료 및 공중보건, 공공질서 및 안전, 정부 시설, 안보 기능 위기 등이 있다.

7) 김용수(2012), 『글로벌 테러리즘』, (서울: 한울), pp.69~70.

8) 이재은, 전계서, p.195.

[표 2-2]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구 분	전통적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주 체	테러 주체가 명확	테러 주체가 불명확
테러 목표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공격	불특정 다수를 추상적으로 공격
테러 조직	수직적 조직 체제	그물망 조직 체제
대응 시간	협상 시간 등 대처시간이 비교적 충분	대처시간 절대 부족
사용 무기	채래식 무기 사용 (총기, 폭발물 등)	대량 살상무기 사용 (생화학, 방사능, 항공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유무	無	有
공포확산 정도	보통	매우 빠름
정치적 부담 여부	테러의 소형화로 부담이 비교적 약함	테러의 대형화로 부담 증대
테러리스트 교육 수준	보통교육 수준	중산층·지식인층 수준
조직 와해 가능 여부	최고 지도부를 제거 가능	조직 와해 곤란
피해 정도	소규모	대규모

출처: 조성일(2011), 「한국의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연구」,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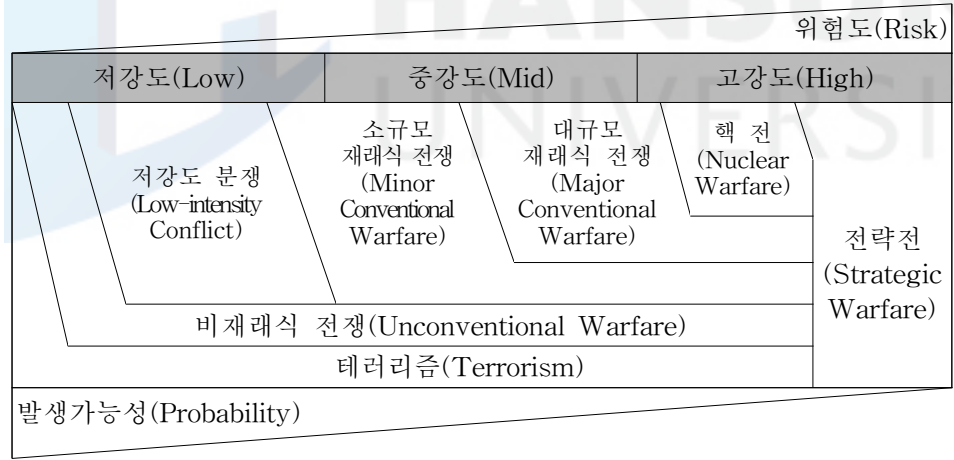
2.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

테러리즘은 정치적 산물인 동시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테러조

직은 상황 변화에 따라 등장되었다가 소멸되거나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 진화되거나 새로운 조직으로 분화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한다. 그 일례로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제 테러리즘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과 그 요인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종식으로 극좌 테러조직의 네트워크가 붕괴되었고, 둘째, 1980년 8월 1일 발생한 걸프전으로 아랍권 테러조직의 구성과 활동이 약화되었다. 셋째, 21세기 이념대립과 테러양상이 이미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9·11 테러 사건은 비국가적·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작전과 같은 치밀한 테러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4세대 전쟁’ 혹은 ‘비대칭 전쟁’으로도 불리며, 21세기 새로운 전쟁 유형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국제 테러리즘은 미국 및 친미국가와 알 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과격 테러조직은 양극화될 전망이다.⁹⁾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 테러리즘은 전쟁 외의 대안적인 방법의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쟁방식으로써 국제 테러리즘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undeclared war)’, 즉 ‘새로운 형태의 전쟁(a new form of warfare)’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림 2-1> 전쟁양상의 분류



출처: U.S. National War College, *Terrorism*, p.6.

9) 권정훈(2012), 『테러리즘과 테러대응 시스템의 재조명』, (경기: 한국학술정보), p.43.

10) 이태윤, 전계서, p.43.

현재 국제환경은 ‘혼합형 분쟁(hybrid conflict)의 시대’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국가 간에 발생했던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장차 발생 가능한 여러 분쟁의 유형을 정확히 전망하는데 난점은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경제상황의 악화 등 부정적 요소들이 증폭될 경우 국제 테러, 무기·마약 밀수 등 각종 다국적 안보위협이 증대될 전망이다.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무기체계의 도입도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¹¹⁾으로 전망해 본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은 재앙적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암시한 계기가 되었고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여객기로 미국 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 3 절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유형

테러리즘의 유형은 어떤 기준에서 테러리즘을 분류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존슨(Chalmer Johnson)은 1973년에 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다양성을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만큼이나 많다’고 표현하기도 했다.¹²⁾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체별 분류, 목적·이념적, 동기 또는 원인별 분류, 국가개입별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개입 여부에 의한 분류

에드워드 미콜러스(Edward F. Mickolus)는 현재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테러활동을 활동조직의 주체와 국가의 개입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미콜러스의 테러리즘 유형분류는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이 현재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지휘통제 여부와 2개국 이상의 국민 또는 영토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11) 김응수, 전게서, p.80.

12) Chalmer Johnson, "Perspective on Terrorism," in W. Laqueur ed., *The Terrorism Reader*(New York: American Library. 1978), p.276.

[표 2-3]와 같이 크게 국가간 테러리즘, 국내테러리즘, 국가테러리즘, 초국가적 테러리즘인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테러조직의 구성, 공격 수단, 공격 목표, 요구사항 등의 항목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 2-3] 테러리즘의 유형별 분류

국민 또는 영토 관련 여부 정부의 통제나 지휘 여부	有	無
有	국 가 간 (international, interstate)	국 가 (state)
無	초 국 가 (transnational)	국 내 (domestic)

출처: Edward F. Micholus, "An Events Data Base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Terrorism," in Richard J. Heuer, Jr., *Quantitative Approaches to Political Intelligence: The CIA Experience*(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p.129.

첫째, 국가 간 테러리즘(interstate terrorism)은 어느 주권국가의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테러행위로서 갈등관계 혹은 적대관계에 있는 타국의 국민이나 영토를 표적으로 하여 테러활동의 주요 무대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영토문제를 갈등의 요인으로 비롯되어 중동지역 내 팔레스타인 그룹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적 테러행위와 북한에 의해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으로써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의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편 보잉707기를 북한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공중폭파 공작으로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¹³⁾한 대표적인 테러리즘과 2011년 8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의문사한 김창환 선교사는 북한공작원에 의한 독극물 암살로 밝혀진¹⁴⁾ 최근 테러리즘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국내 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은 한 국가의 국민과 영토에만 국한되는 테러리즘으로써 이념적·문화적으로 상이한 기존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해 자행되는 테러리즘이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정부가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자치 정부의 수립을

13) 인터넷 위키백과, 2012. 9. 27(목).

14) 인터넷 국민일보, 2012. 12. 6.

인정하자 대부분 얼스터 지방에서 살고 있는 신교도들은 잉글랜드 정부가 이들의 재산과 권리의 탈취를 우려한 나머지 신교도 의용군인 ‘얼스터방위 연합(Ulster Defence Association: UDA)’을 불법적으로 조직하여 잉글랜드 정부에 저항하자 잉글랜드 정부는 가톨릭계의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IRA)과 신교도의 UDA 사이의 분쟁을 우려한 대안책으로 ‘얼스터 지방’을 제외하고 1937년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시켰다.

베트남 전쟁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호전파와 반전파로 나누어진 양극화 시기에 반전운동을 옹호하는 젊은 층의 극렬집단이 조직되었다. 이들을 당시 반전가수로 유명한 밥 딜런의 노래가사를 비유하여 ‘웨더 언더그라운드(Weather Underground)’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은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 내 정부와 기업에 대한 폭탄으로 자행한 공격행위를 들 수 있다.

셋째,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어느 한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나 그 특정체제에 대해 자국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 또는 단체를 감시하고, 그들에 의해 정부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행되는 테러리즘이다. 일명 ‘관제 테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930년대 소련 스탈린 시대의 비밀정보기관인 체카(Cheka)는 공산정부의 정적을 탄압, 농민과 노동자의 반란진압 등 고문·학살·숙청을 자행한 테러리즘이나 히틀러 시대의 나치정권은 체제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밀국가경찰인 게슈타포(Gestapo)를 통해 국민과 타민족을 감시하였다. 즉, 자유주의자·기독교인·지식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유대인의 추방과 학살 등에 대해 서슴지 않고 테러리즘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북한도 역시 체제결속을 위해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는 테러리즘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초국가 테러리즘(transnational terrorism)은 우호적인 정부로부터 정신적·물질적 지원 정도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비국가적 단체들에 의한 테러리즘을 의미한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LO), 북아일랜드 공화군(IRA), 알 카에다 등 현재 활동하는 테러단체를 들 수 있다. 이는 표출되는 양상도 외교관 납치와 인질 사건, 대사관 점거, 정부기관 폭탄테러 등¹⁵⁾ 공격범위가 다양하여 현대사회에 대해 초국가적 위협을 가한다.

15) 이태윤, 전계서, pp.74~76.

2. 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테러리즘 발생의 기본 조건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원인이 있어야 하고, 폭력의 사용이나 그 위협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야 한다. 이 위협에는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특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적 테러리즘이다. 이는 지배국 또는 소속된 국가의 정치체제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자행하는 테러리즘이며 [표 2-4]를 살펴보면

[표 2-4] 혁명적 테러리즘

테러조직	테러 내용
일본 적군파 (JRA ¹⁶⁾)	1974년, 재래식 수단으로 무장한 적군파요원 3명이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프랑스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 등 11명 인질을 억류하여 프랑스에 수감된 대원을 석방시킨 헤이그 사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¹⁷⁾)	1972년 9월 5일, 당시 서독에서 제20회 뮌헨올림픽 시기에 PLO 산하단체인 검은 9월단 소속의 무장단원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침입하여 육상선수를 사살 및 인질 억류 등으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정치범과 일본과 서독출신 적군파 요원의 석방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일관, 무장단원이 인질 전원을 피살한 사건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 로드(Lod) 공항을 이륙, 파리행 프랑스 항공기가 중간 기착지 아테네에서 이륙하자 테러범에 의해 공중 피랍되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하고,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대인 승객을 인질로 억류한 사건
지하드 (Jihad)	1983년 4월 18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슬람 성전단체가 트럭에 폭탄을 싣고 주재 미국대사관에 돌진한 폭탄테러로 90여명 실종, 100여명 부상 등 피해 발생

출처: 인터넷 네이트 지식백과자료 필자 재정리

16) Japanese Red Army: JRA

17)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둘째, 정치적 테러리즘으로 이는 기존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과 이상을 근간으로 하여 수행되는 테러리즘을 말한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주로 비밀리에 폭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케이케이케이단(Ku Klux Klan: KKK)이 여기에 속한다. 남북전쟁(1861~1865년) 후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급진파들은 해방된 흑인들을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여 내전 이전 백인들의 권력구조 분쇄를 기도하자 이에 반발한 남부 백인들은 1866년 급진적인 지하 저항세력의 중추조직으로 KKK단을 조직하였다. 이들 단체는 하얀 가운과 복면을 착용한 인종차별주의적 극우비밀조직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내세워 흑인·가톨릭계 이민자·유대인·동양인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이 이 단체를 이용함으로써 정치세력을 확산하여 여러 지역의 선거에서 승리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민족주의 테러리즘이다. 이는 민족의 분리 독립이나 자치권 확립과 같은 민족자결권을 주장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테러리즘이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중심부인 정부 청사 폭파사건과 연이어 우퇴위아 섬에서 노동당 청년부의 집회 중이던 10대 청소년들에게 자행된 총기난사 사건은 극우주의자의 단독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다문화사회를 반대한 민족주의자의 테러리즘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테러리즘은 파급효과 면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다. 이러한 테러는 심오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테러사건 중 민족주의 테러사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3. 수단과 방법에 의한 분류

테러의 수단과 방법을 기준으로 본 테러유형은 보편적인 분류체계로써 요인암살, 인질납치, 자살폭탄 및 폭파, 항공기 납치 및 폭파, 해상선박 납치 및 폭파, 사이버 공격,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요인암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테러리즘 수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한 살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인질납치는 테러리스트가 감당하는 위험부담에 비해 선전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테러리스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테러수단이다.

셋째, 자살폭탄 공격은 사람의 몸이나 차량에 폭탄을 지니고 목표지점에서 자폭하는 형태의 폭력행위로써, 최근 들어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항공기 납치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폭발테러로,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테러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섯째, 해상의 선박을 납치 또는 폭파하고 선박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해상 선박 테러로써, 때로는 정박 중인 선박이나 항구를 폭파하기도 한다.

여섯째, 사이버 공격에 의한 테러 행위이다.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세계로 전환되어 있는 공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사이버 테러리즘이라고 한다.

일곱째,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량살상무기 중 핵무기로 인한 테러리즘으로써, 이는 크기도 작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무차별적 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는 일반적으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방사능)무기로 구분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일반화되고, 크기가 소형화되어 은밀성과 이동의 용이성이 보장됨에 따라 테러분자나 테러집단이 테러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 위협만으로도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제 3 장 국제 핵 테러리즘의 현재적 위협 분석

제 1 절 핵무기의 위협 및 확산

1. 핵무기의 위협

핵물질을 무기로써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장비와 상당한 수준의 과학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러집단이 보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테러조직들은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핵물질을 구매하거나 약탈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였고, 핵물질 획득이 불가능할 경우 핵 테러리즘의 방법을 달리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⁸⁾

핵무기란 원자핵의 분열반응 또는 융합반응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인명 살상 및 시설 파괴에 사용하는 무기의 총칭으로, 원자폭탄(A-boms), 수소폭탄(H-boms), 핵무기(nuclear weapons), 핵분열폭탄(fission boms), 핵융합폭탄(fusion boms), 열핵무기(thermonuclear weapons) 등으로 불린다. 핵무기는 파괴력을 발휘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핵반응의 종류에 따라 크게 핵분열 무기(예, 원자폭탄)와 핵융합 무기(예, 수소폭탄)로 분류한다.

핵무기는 폭발 시 핵물질이 가진 전체 에너지의 99%를 수백 만분의 1 초 동안에 방출하고, TNT 같은 재래식 폭발물은 1,000분의 1초 동안 반응하여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무기 1mt의 위력은 TNT 100만t에 해당된다. 이 정도 위력을 갖는 핵탄두 크기는 직경 50cm, 높이 1m 이하 크기인 반면 TNT로 그만한 위력을 발휘하려면 화물차는 20t 적재·길이 10m 차량의 5만대가 필요하다.¹⁹⁾

핵무기 효과는 핵탄의 폭발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하폭발은 낙진이나 초기방사선 및 열이 거의 없다. 지표면 폭발 시에는 낙진 효과가 가장

18) 염상원(2010), 「북한 핵정책과 테러리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원), pp.12~13.

19) 김종수(2011), 「북한 핵 테러리즘 가능성 분석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원), p.17.

크고, 공중폭발 시에는 낙진의 범위가 비교적 작은 폭풍, 열 및 초기방사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핵무기 20kt은 공중 3,000m까지 폭발 시 아래 [표 3-1]와 같이 피해효과를 발생한다.²⁰⁾

[표 3-1] 핵폭발 시 피해범위 (20kt)

구 분	열 효 과		초기방사선 (감마선)	낙 진	폭풍효과 (건물피해)
	화 재	화 상			
1.2km	화 재	치 사	치 사 (5일~1개월)	심각한 오염(15km)	완 파
2km	산발적 화재	3도 화상	50% 치사		
3km	화재가능	2도 화상			경 미
4km		1도 화상			
5km		망막 화상			

출처: 국방부(2010),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P.69.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효과를 발생하는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이를 제조하여 보유하게 되면 그 국가는 국제 정치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며 군사적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이 된다.

2.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

1939년 핵무기의 이론적 가능성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핵무기 보유를 위해 각국의 시도가 진행되었다. 세계 2차대전 기간 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확산되어 미국, 舊 소련,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이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1950년대 중반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²¹⁾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의 위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²²⁾

20) 김종수, 상계서, p.18.

21) 조동준(2010),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비확산과 핵확산: 이론적 시각』, (서울: 오름), p.20..

첫째, 무기 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이다. 미소 냉전시대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주요 강대국에 의해 소유되었으나, 냉전이 종식 이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파생무기의 출현이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군에 의한 알 카에다 근거지 수색에서 발견된 이른바 ‘더러운 폭탄’과 같은 무기도 핵무기의 파생적 무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파생무기 출현은 포착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매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게 한다.

셋째, 중거리 미사일 개발 및 기술 확산은 기술적으로 제작의 어려움이 있는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개발이 용이하여 사정거리 1,000~3,000km 범위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MRBM)이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제 2 절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

1. 알 카에다

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항하는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1989년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알 카에다(Al-Qaeda: 기지라는 뜻)라는 테러조직이 창설되었으며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모집, 훈련, 재정 및 수송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목표는 전 세계에 회교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비회교 정부를 전복하고 회교 국가에서 서방인을 축출하며 1998년 2월 “유대인 및 십자군에 대한 성전을 위한 세계 이슬람 전선”이란 구호 아래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구별 없이 미국인과 미국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살해하는 것이 회교도의 임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²³⁾

22) 염상원, 상계서, p.15.

23) 허윤(2007),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테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원), pp.43~44.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비롯한 미국을 상징하는 세 곳을 동시에 겨냥하여 전쟁규모의 자폭 테러리즘을 가한 9·11 테러 사건으로 이미 전 세계적 악명을 얻은 알 카에다의 테러리즘 범행은 하나같이 21세기형 신종 초대형 테러규모로써 이로 인한 무고한 인명살상과 건물 등 재산파괴는 엄청난 것이었다. 알 카에다는 거대한 다국적 국제테러 단체로써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모병을 할 정도로 그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이들은 60~70여개 국가들에 지부를 두고 기민하게 테러축수를 세우고 있으며, 5,000~6,000명의 테러리스트 전사들과 동맹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다른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위한 핵심적 사령부이며 이들의 엄호 및 우산 역할을 떠맡고 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적 세포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근본주의 과격 수니교파와 유대를 가짐으로써 힘을 보강해왔다. 이들은 2001년 말경 미영동맹군이 후원정권인 탈레반 정부를 권력에서 축출할 때까지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미·영 동맹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를 추격한 후부터 이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분산했으며 지금도 미국 본토에 대한 제2의 9·11 테러리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를²⁴⁾ 가능성을 염두하여 본다.

2. 북한

북한은 알 카에다 테러조직보다 더 압도적이고 조직적인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강점 중의 하나는 대규모 비정규전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20여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부대 요원들의 수송수단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AN-2기와 상륙주정, 공기부양정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한국 내 전 지역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최근 대남 공작부대를 통합하여 확대된 정찰총국은 노동당 대남 공작기구였던 작전국과 대외정보국, 정찰국과 대남 협상부서 등으로 편성되어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찰총국으로 통합되면서 확대된 것이다. 이 중에서 정찰국은 무장공비 양성 및 납파, 요인암살·파괴·납치 등 게릴라

24) 여영무(2006), 『국제 테러리즘 연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265~268.

활동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²⁵⁾

[표 3-2] 대남 침투·도발 사건 (1954 ~ 2010년 11월)

구 분	건 수	세 부 내 용
침 투	1,604건	· 육상 720건, 해상 920건
국지도발	1,020건	· 지상도발 470여 건 (총·포격 90여건, 습격·납치 70여 건 등) · 해당도발 510여 건 (경비정·어선 월선 490여 건, 해상교전 20여 건 등) · 공중도발 40여 건 (영공 침범 20여 건, 미사일 사격 10여 건 등)

출처: 「2010 국방백서」, 2010, P.250.

북한의 한국을 겨냥한 주요 테러리즘의 예를 들어보면 1987년에 발생한 KAL기 폭발사건, 1998년에 발생한 동해 잠수정 사건, 그리고 1974년 장충동 국립극장 8·15행사장에서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미수 및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과 1997년에 발생한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암살 사건과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폭발테러 사건 등은 모두 노동당의 통일 전선부, 대외연락부, 기존 35호실, 작전부의 테러리즘 부대들이 저지른 것이다. 이들 테러리즘 부대들은 각종 침투수단과 테러용 장비와 무기, 화생 및 독소무기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도 한국과 해외에서 자행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²⁶⁾

또 다른 위협으로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등의 도발행위는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그리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²⁷⁾과 1994년 ‘제네바

25) 국방부, 『집중해부 북한·북한군』, (군사학회), pp.297~300.

26) 김종수, 전게서, pp.24~33.

27)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대표접촉 끝에 양측 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동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1991년 12월 채택하고, 1992년 2월 19일 6차 고위급 회담(평양)에서 남북기본 합의서와 함께 발효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기본합의²⁸⁾를 위반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상황의 위협이 되며, 국제사회는 이를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고,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5MW 원자로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재처리 과정인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고, 이와 병행한 고품 실험을 하는 등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다.²⁹⁾

북한은 수차례의 6자회담과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와 2003년 4월 북경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발언’에 이어 같은 해 5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했고, 2006년 제1차 핵실험과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계속 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국제협약을 무시하면서 핵개발에 집착을 보이는 명분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라고 대외 선전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계속 추진하여 결국, 북한은 한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이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뒤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재처리시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방사화학실험실 붕괴 합의해 실질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사찰 문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비핵화선언 합의 시 한국은 IAEA의 핵사찰 미흡에 대비해, 북측은 미군기지 사찰을 위해 상호사찰에 동의했으나 1992년 3월 19일이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의 13차례, 위원접촉 8차례를 가졌으나 단 한 차례도 상호사찰을 하지 못했다.

28)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합의문은 기본합의문과 비공개 합의문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합의문에는 핵 특별사찰을 통한 핵 의혹 해소문제, 핵 동결과 관련시설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감시 보장,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핵연료봉 처리, 경수로 건설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남북한 대화 재개, 북·미관계 개선 등이 언급되어 있고 비공개 합의문에는 기본 합의문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과 공개가 곤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나오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된 것은 북한이 IAEA와 맺은 <핵 안전 협정>에 따라 IAEA가 6차례의 사찰을 한바, 이 결과가 북한의 보고 내용과 다른 데서 IAEA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였으며, 이어 1994년 6월 13일 이 기구에서 탈퇴마저 선언하였다.

29) 김강녕(2009), 『남북한의 군사와 현안문제』, (경주: 신지서원), pp.185~186.

30) 김응수(201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서울: 아이), pp.196~197.

[표 3-3]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 동	중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 (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 (추정)
비 고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82.

또한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SCUD-B/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 하였고, 1990년대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배치 하였으며, 2007년에는 ‘무수단’이라 불리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표 3-3] 북한의 미사일 제원을 보듯이 한국을 넘어 일본과 괌 등도 미사일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갔다.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다수를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하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 기술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 거의 100% 독자 생산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2008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있어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³¹⁾

3. 국경 없는 자생 테러조직

국제 핵 테러리즘을 촉발하는 주체는 특정한 테러조직을 예측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각 국가별로 이민하여 정착하고 또한 그들의 후손이 자생되어 온 외국계 자국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제한되어 제2의 테러조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이민 2~3세대로 태어나서 성장

31) 고성호 외(2011),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pp.109~112.

하고 교육받은 자국민에 의해 국가내부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7·7 런던 테러 사건은 영국에서 나고 자란 파키스탄계 영국인의 범행이었다. ‘자생적인 테러리즘’은 자기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 자행되는 테러리즘으로써 공항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봉쇄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제 테러조직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별도 관리가 가능하나, 인종은 다르나 법적으로 자국민인 이민 2~3세대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국제(외입)테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협적 테러요인³²⁾으로 그 원인은 타국계 자국민에서 자생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일반적인 테러리스트들 같이 높은 군사훈련과 세뇌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인터넷과 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양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생겨나고 있어³³⁾ 제2의 자국에서 자라는 자생테러조직은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내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국제 핵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 3 절 국제 핵 테러리즘의 대상

1. 불특정 일반대중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점차 일반대중을 살상하는 ‘보편적 테러’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행위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더욱 잔혹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에 납치한 항공기를 테러무기로 이용한 테러로 인해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비롯하여 2010년 12월 20일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1톤의 폭탄을 실은 트럭이 호텔에 돌진해 60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1년 1월 24일 이슬람 단체가 러시아의

32) 송은희(2011), 「대테러정책: 자생적 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정보원), p.69.

33) 이만중(2011), 「대테러정책: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전략」, (서울: 국가정보원), pp.10~12.

수도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인 35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한³⁴⁾ 사건 등을 볼 때 테러조직은 불특정 일반대중을 목표로 하여 테러를 자행하고, 그 피해는 대규모의 인명 살상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2. 테러 목표의 무차별성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테러발생을 위한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테러리즘 기회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4개 요소인 목표물(targets), 무기(weapons), 도구(tools), 테러리즘 촉진요소(facilitating conditions)는 현대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함께 테러 발생의 기회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구조인 4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목표물(targets)은 관심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며 목표물 접근의 용이성, 파괴 후의 영향력, 영향을 받게 될 주체인 기업, 정부기관 등 테러행위자의 파괴행위가 주는 상징적 여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요소인 무기(weapons)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적합성과 용이성이 고려될 것이다. 세 번째 요소인 공격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도구(tools)로써 그 유형들은 차량, 휴대전화, 현금 및 신용카드, 위조여권, 운전면허증, 지도, 신분증, 목표물에 대한 정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촉진적 요소(facilitating conditions)는 현대사회의 테러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요소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동조하는 지역 주민들, 핵무기 암거래를 포함한 무기 암거래시장의 접근, 테러행위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세탁 및 시장 여건, 정부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의 부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³⁵⁾

1980년대부터 헤르프리트 뮅클러(Herfried Munkler)가 주장한 ‘폭력전략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 자립화’, 즉 폭력의 논리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틀을 벗어나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상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34) 김응수, 전계서, pp.160~161.

35) 이태윤(2009), 「국제 핵테러의 발생가능성 고찰」, 육군대학 군사평론 402호, pp.26~27.

1990~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화생방 무기 사용이나 항공기 폭파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전쟁 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대량 인명 살상을 노린다. 이른바 메가 테러리즘으로 그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따르면 1994년에는 365건의 테러리즘이 발생했으나 2000년대 들어 테러리즘의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증가했다. 현대 테러리즘은 일격에 대량 살상을 유발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비지속성 테러리즘(unsustained terrorism)이라는 특징이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입장에서 폭력의 자의적·확산적 사용은 상당 부분 의도된 것인데, 이는 테러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무차별적인 초국가적 테러리즘은 희생자들의 성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항상 비난을 받고 있다.³⁶⁾

제 4 절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유형

캐나다의 Gavin Cameron 박사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전략 핵무기의 도난과 핵물질 구매에 의한 국제테러가 21세기의 악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Calgary 대학교 교수인 그는 “Nuclear Terrorism: A Threat Assessment for the 21st Century”라는 저서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핵과 관련된 테러리스트들의 4가지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³⁷⁾

그가 제시한 핵 테러리즘의 발생가능성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³⁸⁾

- 1)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 2)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 3)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36) 김응수, 상계서, pp.163~167.

37)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Policy Agenda* Vol. 10(Washington, D.C., 2005. 3), pp.17~30.

38) Gavin Cameron, “Nuclear Terrorism: Weapons for Sale or Theft?” *Foreign Policy Agenda* Vol. 10(Washington, D.C., 2005. 3), p.17.

4) 방사능 살포 폭탄(RDD: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을 제작하기 위한 방사능 물질 탈취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중,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RDD 혹은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시나리오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더러운 폭탄’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포함시킨 것이다. ‘더러운 폭탄’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재래식 폭탄의 파괴력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폭발물과 함께 방사능 오염물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악화된다.³⁹⁾ Gavin Cameron 박사가 제시한 핵 테러리즘 4가지 유형을 분석하면

1.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핵 테러리즘은 핵무기를 훔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핵무기를 필요하려 할 것이며 굳이 핵무기를 제조하기보다는 훔쳐내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현재 핵을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다. 핵무기 전문가이며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인 데이비드 울브라이트는 이들 국가 중 특히 파키스탄의 거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서구 전문가들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암거래 및 산업스파이를 통해 구축된 것이라 지적한다.

핵 비확산 규칙을 깨뜨리는 것은 이미 뿌리 깊은 관습이 돼 있다. 파키스탄에 불만을 품은 개인들이 핵물질을 그 제조기술, 심지어 핵탄두를 빼돌리기 위해 불법적인 통로를 찾으려 든다면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장 공포스러운 곳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현재 관리 중인 핵탄두 수는 약 1만 5,000개나 된다. 핵탄두 수가 2만 5,000개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양이다. 이 정도 양이면 최대 핵탄두 수가 2만 5,000개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양이다. 이 정도 양이면 최대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500kt의 파괴력을 지닌 것이다.

39) 이태윤, 전게서, p.14.

알 카에다 역시 그동안 끊임없는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알 카에다의 우두머리였던 오사마 빈 라덴은 1998년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해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저서 ‘위험 행상꾼(Peddling Peril)’에서 빈 라덴은 9·11 테러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01년 8월까지 핵무기 구입을 위해 북한 등에 핵기술을 이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 등 파키스탄 핵 과학자들에게 접근했었다고 폭로한바 있다.⁴⁰⁾

국가차원에서 테러집단에게 핵무기를 의도적으로 넘겨주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넘겨준 핵무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에 의한 보복, 핵무기로 무장한 테러집단에 의한 쿠데타 발생 등을 염출하여 보면 원천적으로 핵무기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2.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제3세계의 많은 분쟁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 종족 갈등 등의 위험요인들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핵 공갈 또는 핵테러리즘이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핵무기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향후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의 증가로 테러단체들에게 핵무기를 도난당할 기회는 증대될 것이다. 중소국가를 포함한 테러리즘 집단이 플루토늄의 재처리와 재순환 및 원자력 연료 사이클의 주요부분을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고속증식로가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더욱 큰 두려움을 주고 있다.⁴¹⁾

핵 테러리즘은 ‘핵물질 혹은 방사능 물질을 직접 무기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시설을 공격해 인명을 살상하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공격행위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과 단체, 공동체,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40) 이장훈(2010), 「테러 조직들의 핵 획득 시도는 실제 상황」, (서울: 국방저널), p.51.

41) 김종수, 전게서, pp.39~40.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로 정의할 수도 있어 핵 테러리즘은 메가급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와 방사능무기는 엄연히 다르다. 핵무기 제조기술이 없더라도 테러 조직들은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재래식 폭탄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이라 불리는 무기이다.⁴²⁾

더러운 폭탄은 의료 기관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핵무기처럼 복잡한 핵분열 장치가 없어 일반 핵무기 파괴력의 수천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지만 방사능 물질 유포로 해당 도시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복구 작업에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더러운 폭탄'은 '대량혼란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라고 지칭되며 핵 테러리즘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⁴³⁾

1995년 러시아와 1998년 체첸에서 더러운 폭탄이 발견되었고, 200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에 의해 더러운 폭탄을 제조한다는 증거가 밝혀졌다. 이러한 징후를 보면 현재까지 악의적으로 방사능 오염테러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협의 수준은 한걸음 다가와 있다. 만약 더러운 폭탄 테러가 어느 한 도심지역에서 발생한다면, 방사능 공포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과 더불어 테러발생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방사능 오염반경 이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안전지대로 이탈 조치한 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장기간을 걸쳐 방사능이 소멸하는 동안 오염지역을 고립하는 등의 국가와 지역경제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1997년 엘친 대통령의 국가안보 담당보좌관인 알렉산더 레베트(Alexander Lebed)는 러시아에서 132개의 KGB용 특별 손가방 핵무기들 중 84개가 분실됨을 확인했다. 이들 초소형 핵무기는 개인 휴대용 가방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0.1 또는 1kt급으로⁴⁴⁾ 러시아 당국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체제로 넘어오는 전환기 때

42) 다이너마이트 같은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능물질을 결합해 만든 장치로써 핵분열 물질(우라늄 플루토늄)로 만드는 핵폭탄과 달리 일반 병원이나 산업시설에서 쓰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조하기가 훨씬 쉽다. 이미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집단은 더티 밤을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동아일보, 2012. 3. 12)

43) 이장훈, 전계서, p.53.

44) Graham Allison, *Nuclear Terrorism-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2005, pp.8~12.

20여개 이상의 핵무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들을 분실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북한의 테러수행기구나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도난된 핵물질이나 북한에서 유입한 소형의 핵무기를 휴대시켜 한국의 중요시설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핵 테러리즘을 가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반핵 테러리즘 정책이 강화되고 요구된다.

3.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캘리포니아 연구소는 향후 테러리스트들이 핵발전소를 공격하여 이를 빌미로 정치적 협상을 요구할지 모르며 만약 그들이 실제로 핵 폭발장치를 획득하게 되면 폭파 또는 폭파를 전제로 위협을 가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핵확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로 핵시설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농도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국가의 약 1/3이 제3세계에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핵전문가들은 핵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핵 원자력의 시설은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양상은 테러리스트들이 향후 원자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많은 시설과 핵산업의 확산이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매력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⁴⁵⁾

미국은 이론적으로 접근한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주요 도심지역에 근접한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테러조직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원자로를 파괴시킨다면 수백만 명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이다.⁴⁶⁾

가상의 이론적이기는 하나 만약 테러조직이 항공기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원전시설을 폭파시키면 핵물질을 살포시키는 것과 동일한 피해효과가 발생하며 시설에 대해 취약성을 파악하고 있는 테러조직이 원전시설 내 핵물질을 냉각하는 안전장치를 손상시킨 뒤 도심지역에 방사능을 누출

45) Michel Flood, "Nuclear Sabotage, " Studies in Nuclear Terrorism, pp.123~124.

46) 1991년 이래 핵규제위원회는 81회에 걸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시험하였으며, 이중 방사능을 방출할 정도의 37차례의 공격이 성공하였다.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미국은 주기적으로 연합정부의 요원에 의해 모의 침투훈련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고 있다.⁴⁷⁾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테러 공격 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행기가 어느 부위에 충돌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피랍된 항공기가 격납고 돔(Dome)을 뚫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용융 사고를 발생시켜 수억 큐리(Curie)⁴⁸⁾의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다.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따른 피해⁴⁹⁾를 비교할 때 당시 유출된 방사능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양이다. 방사능 유출사고가 어떤 것인지는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의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⁵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더욱 취약한 표적은 폐연료봉 보관소이다. 이 속에는 잔류방사능에서 방출된 열로 인해 폐연료봉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조 속에 보관하고 있다. 이 시설에 항공기가 충돌하면 수조의 물이 방류되거나 안전장치들이 파괴되어 폐연료봉의 핵반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체르노빌 사고보다 많은 양의 방사능을 대기로 누출되어⁵¹⁾ 오염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전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조직의 위협을 간과할 수 없으며, 방사능 살포 및 누출에 따른 오염 등의 핵 테러리즘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인접 국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물리적 방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47) 김종수, 전계서, pp.41~43.

48) 방사능 측정 단위로써 1큐리는 방사성물질 중의 방사성 핵종의 매초의 괴변수가 정확히 3.7×10^{10} 일 때의 방사능을 말한다. 기호는 Ci.

49)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美 폭격기 에놀라 게이(Enola Gay)에 의해 원자폭탄(일명 ‘꼬마(Little-boy)’) 투하로 사망자만 10만 명이었고, 그 해末까지 14만 명이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수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히로시마의 7만 채의 건물 가운데 반 이상이 파괴됐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美 폭격기 복스 카(Bock's Car)에 의해 원자폭탄(일명 ‘뽕보(Fat-Man)’) 투하된 결과로 그 해末까지 7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후 5년 내에 모두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50) 김명자, 전계서, p.135.

51) 박선섭, 김태우(譯), 전계서, p.13.

제 5 절 핵 테러리즘 발생 시 파급영향

1. 정치·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으로 미국의 동맹국 중 어느 한 국가 내 끔찍한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보복을 위해 절치부심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 핵무기나 핵물질의 출처가 북한 등의 ‘불량국가’로 밝혀진다면 미국은 분명하게 그 국가들을 보복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물론 그런 가능성보다는 신흥 산업국이나 관리가 허술한 국가의 원전이나 연구용 원자로에서 몰래 밀반출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미국의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미국이 악명은 높지만 테러사건과 무관한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외교적 충격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비확산체제의 와해와 동맹안보체제의 이완을 초래할 수도 있다.⁵²⁾

도난 및 탈취된 핵무기나 핵물질이 어느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 특정 국가가 먼저 핵 테러리즘의 목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도 없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훔친 핵무기나 핵물질로 인해 어느 한 국가 내에서 자행된다면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피해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 원점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의 주체인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면 이는 극명한 심리적 충격을 받을 것이며,

둘째, 경제 시설물로서 각 종 산업시설과 관공서의 파괴로 인한 그 지역과 국가의 경제 생산성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며,

셋째, 핵 테러리즘이 발생된 특정 국가는 체르노빌 사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전사와 같은 그들의 피난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52) 박선섭, 김태우(譯), 전게서, pp.268~269.

넷째, 후쿠시마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 원전시설에서 뿜어져 나온 세슘으로 인해 그 지역의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어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가 급감으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지표가 낮아질 것이며,

다섯째, 방사능과 낙진의 2차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국가와 인접 국가에 타격을 주어 경제적인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 테러리즘으로 인한 외국 투자 유치했던 자본도 국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인 불안감은 생필품 사재기로 발생되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인 측면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스퀘어 광장에서 핵 테러리즘이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대 예술박물관에 이르는 모든 것이 증발할 것이다. 트랜스아메리카 빌딩에서 노힐(Nob Hill) 사이의 모든 것은 대량파괴의 희생물이 될 것이며, 코이트 타워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베이브리지 지역 내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일 것이다. 또 다른 도심지역을 가정한다면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불러바드와 하이랜드 에비뉴의 교차지점에서 핵폭탄이 폭발한다면 역사적인 맨스 차이니즈 극장(Mann's Chinese Theater)와 할리우드의 명소인 명예의 거리(Walk of Fame)를 증발시켜버릴 것이다. 과거 아카데미영화상 수상식을 거행했던 팬터지즈(Pantages) 극장도 부서져버릴 것이며,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화마에 의해 할리우드 언덕에 있는 'Hollywood'란 글자도 지워져 버릴 것이다.⁵³⁾

미국의 가상의 예를 들어 보였지만, 핵 테러리즘의 파급효과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로 발생한다. 이는 상상 만해도 처참하여 현실에서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도심지역 내 모든 교통 및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 거의 모든 사회 간접시설물들의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다. 이는 곧,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기관, 병원시설,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 등 모든 사회 기반시설 체계의 마비는 곧, 국가의 운영체제의 마비라고 할 수 있다.

53) 박선섭, 김태우(역), 전계서, pp.9~10.

제 4 장 한국의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노력

제 1 절 국제 레짐과 연계한 반핵테러리즘 공조 노력

1. 유엔 총회의 반핵테러리즘 국제협정

2005년 4월 13일 유엔 총회는 ‘핵 테러리즘 범죄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Nuclear Terrorism Convention-‘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을 채택했다.⁵⁴⁾ 이 협정에 따르면 핵 테러리즘은 인명 피해, 재산이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연인·법인·국제기구·국가를 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핵·방사성 물질 또는 장치를 제조·보유·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또한 핵·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핵 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핵 테러리즘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

2. 국제원자력기구의 핵확산 방지

1953년 12월 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안(Atoms for Peace)’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하는 연설을 했다.

첫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UN 산하에 새로운 원자력 기구를 설치하고, 핵분열성 물질의 관리를 맡고,

둘째, 핵분열성 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국제적 규모로 조사하며,

셋째,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부응해 미국의 원자력법도 개정됨으로써 1954년 8월 30일 새로운 원자력 법안이 마련되어, 원자력에 관한 국제 협력과 민간 협력이 강화되었고,⁵⁶⁾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54) 여영무, 전게서, p.356.

55) 이장훈, 전게서, p.50.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UN의 독립 전문기구로 창설되었다.

IAEA는 전 세계의 평화, 보건 및 번영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촉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울러 IAEA의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활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물자 및 서비스 제공과 정보 교환,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조치 강구 등이다. 이에 근거, 회원국들에 대한 각종 핵사찰을 벌인다.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 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핵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 국가의 대테러리즘 입법동향

1. 미국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은 테러리스트의 공격 목표가 되어 왔으며, 실제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총 1,552건의 테러리즘 중 25.5%인 395건이 미국을 목표로 수행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닉슨 행정부에서는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각료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포드 행정부에서도 테러리즘 진압을 위한 각료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국가안보 결정지시」를 통해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왔으나 결국엔 9·11테러 사건으로 인해 빛을 잃고 말았다.

미국의 일관된 대테러 정책 기조는

56) 김명자, 전계서, p.112.

첫째, 불양보 정책을 강력하게 고수한다. 즉 테러리스트에 대한 양보는 더 많은 양보와 또 다른 테러리즘을 계속 유발하므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테러리스트들은 반드시 재판에 회부하고

셋째,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고립시켜 그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며

넷째, 미국에 협조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대테러 능력을 고양한다는 것이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새로운 테러리즘 양상, 즉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응태세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관련 조직의 신설과 보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강화 등의 더욱 강경한 대테러 정책을 천명하였다.

이후 미 국방부는 2006년 1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 된 이후 약 3년 만에 결친 국방부의 경험과 9·11위원회가 도출한 정책적 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국가 군사전략계획을 발간하였는바 여기에 미군이 지구적 차원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가 및 군사 전략적 지침들을 명시하였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체계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국제 테러에서 미국 본토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⁵⁷⁾하고,

둘째, 테러 예방·저지와 테러리스트 색출·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입법 조치를 취했다.⁵⁸⁾

57) 대테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정책 조정을 위해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으로서 국토안보부(DHS)를 설치하는 등 대응조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58) 이창용, 전계서, p.210.

[표 4-1] 미국의 애국자법

구 분	입 법 내 용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 확대	· 각종 서류 위조범죄 및 테러범(지원자 포함)의 범죄행위 감청 · 외국인을 감청 시 최대 120일까지 연장 · 감청자료는 안보분야 담당 공무원까지 제공 · 테러 혐의자 영장 집행 건에 대해 미통보 · 통신 감청 범위는 전국적 확대
테러자금 유통 차단	· 전 금융기관, 외국 단체의 계좌에 자금 세탁여부 확인 및 통제 · 외국계 실체 불분명한 금융기관은 미국계좌 개설 금지 · 테러자금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 법집행, 규제기관에 정보 공유 · 의심 테러자금은 금융거래 관련 보고 의무화
이민관계법 개정	·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국경순찰대, 관세청, 이민국 직원의 수를 증가한 검문 강화 · 법무부장관에게 국경근무자 자격심사 권한 부여 · 국경근무자에게 출입국자의 전과기록 열람 보장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동향을 감시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	· 테러 혐의 의심자에 대한 7일 이내 추방조치 또는 형사법 기소 가능 ※ 영장 없는 구금 허용 · 테러 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법정 최고형 처벌 · 테러범 복역 및 출소 후 사망 시까지 감시
테러 피해자 및 대테러 종사자에 대한 보상	· 9·11 테러 사건 관련 사망 혹은 상해 피해자,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 보상 · 대테러 활동 종사한 공공안전요원의 피해 보상

출처: 이창용, 전게서, pp.214~216, 필자 재정리

2. 영국

영국은 북아일랜드 문제와 국제테러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혐의자의 수사 및 처벌, 테러자금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0년 7월 20일에 대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하였고, 이후 9·11 테러가 발생하자 2001년 12월 14일에 반테러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테러법 보다 테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과 테러범에 대한 출입국 통제, 자산동결 등 수사권의 강화의 내용을 담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일반적인 형사범으로는 테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존 보다 강화된 대테러법(Terrorism Act 2006)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⁵⁹⁾

다음 영국의 대테러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과 같다.



59) 류원호, 전계서, p.106.

[표 4-2] 영국의 대테러정책

구 분	입 법 내 용
테러 수사	• 「테러법」은 테러혐의자에 대한 수사권 강화, 감청·체포·수색 및 검색 등 특칙을 마련 • 「조사권법」 개정, 테러혐의자 최초 감청기간 수정 (3→6개월), 감청기간 연장(9→최장 12개월) • 「테러방지법」은 종전의 「테러법」 개정, 테러혐의자 구속기간 확대(14일 이내→최장 28일), 테러 증거자료의 보존·검증 및 분석을 위한 구속이 가능, 테러사건 조사 영장에 적시된 물건·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 테러 표현물 압수·수색 영장발부, 압수 출판물을 관리·몰수·과기하도록 권한 부여
출입국 보안	• 「테러자금처벌법」 제정, 출입국 보안을 강화하여 출입국자에 대한 테러와 의심을 불문하고 검문·검색 가능(차량·항공기·선박에도 확대) • 의심 자금을 압수, 압수된 자의 변호인 불참하여도 압수기간 연장하여 테러자금 유입을 차단
테러자금의 감시	• 「테러법」 제정,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제공·대여·지원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테러를 위해 이를 사용·은닉 또는 사법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범죄로 규정 • 유죄판결 이전 재산 압수 후 몰수명령 권한 부여
테러행위의 처벌	• 「테러법」은 테러단체 가입, 본인이 조직원임을 공개, 테러단체 지원 권유 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 「대테러법」은 테러혐의자가 신분을 미공개, 위조 신분증 사용, 변장 등 신분 허위 시 신분확인용 지문 및 유전자 검사 등 신체 일부 채취 가능, 채취지문은 10년간 보존 • 「테러방지법」은 테러 관련 표현물로 전파, 배포 시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테러 관련 훈련을 받는 경우 및 테러훈련 장소에 방문 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 「핵물질 범죄법」⁶⁰⁾은 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범죄는 기존 14년 이하 징역에서 종신형으로 강화

출처: 권정훈, 전게서, pp.119~122, 필자 재정리

60) 「핵물질범죄법」은 핵물질을 이용하거나 핵물질과 관련하여 행해진 살인, 강도,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 및 핵물질의 수령·소지·처분 및 이를 이용한 협박, 공갈 등을 처벌하려는 것으

3. 독일

1972년 ‘검은 9월단’에 의한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사건을 계기로 “1974. 12. 20 제1차 개정형사소송법의 보완법”을 입법화하여 테러법에 대한 형사소송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며, 1976년 서독일 적군파에 의한 주요 요인 인질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테러대책법을 내용으로 한 “1976년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및 현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테러 대책법”(2002.11)을 제정함으로써 보안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심사법, 에너지법 등 개정을 통해 테러분자 색출 및 위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⁶¹⁾

다음 독일의 대테러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과 같다.



로써 국적과 범죄행위자에 관계없이 영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1) 류원호, 전계서, pp.111~112.

[표 4-3] 독일의 대테러정책

구 분	입 법 내 용
테러감시 및 수사	• 「형법」은 테러단체 조직죄의 구성, 테러범죄 계획의 불고지죄 신설 및 면책규정을 보완 • 「형사소송법」은 테러분자 구속요건 완화, 주거 또는 건물의 압수수색, 통신감청, 검문소 설치, 우편검열, 함정수사, 전산망 검색권 인정, 12시간 범위 내 서류·기타 물건 수수의 제한과 감시, 테러혐의자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권리를 제한 • 「국제테러대책법」은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전면 금지, 사회기간시설 보호 위한 보호대상 시설 목록을 적시
출입국 보안	• 「국제테러대책법」은 항공기내 안전요원 탑승 및 민간인 탑승 정지와 신원확인 목적 위한 검문실시 권한, 외국인 체류 및 입국 거부 가능 • 「난민심사법」은 난민심사 과정 중 신청자 출생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언어분석을 시행 후 지문채취 및 10년간 범죄 조회 자료로 활용 • 「외국인 등록법」은 외국인의 등록과 중앙등록소의 관리를 강화, 테러대응기관에 외국인 등록자료 제공
테러자금의 감시	• 「국제테러대책법」은 연방정보국(BND)법을 개정, 연방정보국에 개별 사건별 금융기관, 신용회사 등에 테러혐의자의 계좌 및 거래내역 요청권과 통신회사 등에 테러혐의자의 통신 관련 정보 요청권을 부여
테러범죄의 처벌	• 형법적 대응으로 사전에 테러를 저지 • 테러범죄 실행 이전이라도 살인, 약취강도, 인질 및 주요 산업시설 파괴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 가입, 지원, 선전 등의 행위를 ‘테러단체 조직구성죄’로 처벌 • ‘테러범죄불고지죄’ 신설되어 성직자·의사·변호사·친족 등 면책적용 배제

출처: 권정훈, 전게서, pp.119~122, 필자 재정리

3. 일본

일본은 테러대책에 있어서 1980년대 이전까지 입법정책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동경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 이후 1999년 「무차별 대량살인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어 테러입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수사나 처벌 절차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특칙을 두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2002년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등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테러에 입법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다만 테러방지법과 같은 통합적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다.⁶²⁾ 다음 일본의 대테러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 일본의 대테러정책

구 분	입 법 내 용
출입국 관리	· 「출입국관리법」, 「여관법 시행규칙」 제정 ☞ 출입국 관리 강화 · 2004년 12월 「테러대책추진요강」 토대로 「테러방지에 관한 행동계획」 제정 ☞ 입국심사 강화 · 2006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정 ☞ 용의자 강제 퇴거규정 마련 · 2003년 「국민보호법」 대규모 테러 대비 「사태대처법」 개정 ☞ 국민 보호
테러자금의 감시	· 「테러자금처벌법」 제정, 테러자금 제공을 감시 · 「조직범죄처벌법」 개정, 테러자금 제공, 은닉 및 수수행위 시 처벌
중요시설의 안전대책	· 공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핵물질 관련 안전대책 강화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테러대응을 위한 민간 영역의 도입	· 2002년 4월 내각부(총리실) 산하 민·관 컴퓨터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 테러리즘 대책기구를 설치 · 탄저균테러 확산 계기로 인원·장비 확충을 위한 「생물무기 대응 기본방침」을 마련 ※ 각 부처의 생물무기 대응체제를 일원화

출처: 권정훈, 전계서, pp.119~122, 필자 재정리

62) 류원호, 전계서, P.118.

제 3 절 한국의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노력

미 국방부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방사능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이 내제된 지역으로 꼽고, 이에 대비를 위한 특별 대책과 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⁶³⁾

1. 한국 내 국제 핵 테러리즘적 환경 분석

가. 고도의 도시 집중화 현상

한국은 6·25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의 문화와 지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폭력현상이므로,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두 개의 도시 중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각종 행정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울 내 타격 목표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테러공격을 당하는 대상 목표의 특징으로 보면

첫째, 시각적으로 확연히 노출된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이나 행정관서 등의 목표물이 숨겨져 있는 목표물보다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데 다양한 기능상 필수 불가결한 역할의 중요성을 띤 정도를 말한다.

셋째, 테러리스트의 정치적 명분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목표물에 투영된다면 가장 치명적 해를 가할 수 있는 특징이다.

넷째, 테러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무고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건물들은 공격 대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다섯째,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파괴 가능한 목표를 선정할 것이며 목표대상물의 명중 확신이 없으면 차선의 목표를 고려할 것이다.

여섯째,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주된 목표는 건물의 파괴만이 아니라 목표의 전부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가능한 많은 사

63) 강영숙 외, 전게서, p.291.

상자 발생, 정보획득과 인질의 협상에서 그들이 우위를 점유하려는 특성이 있다.

일곱째, 테러리스트들이 목표물을 선정할 때 가급적 그들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간적·시간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할 것이다.

여덟째, 보안을 엄두에 두지 않고 건설된 건물들은 테러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만, 강화된 보안시스템의 건물이 그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며 이를 성공했을 경우 그들의 무한한 힘을 과시할 것이며 공포를 더욱 확산시킬⁶⁴⁾ 우려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 4-4] 전국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비율을 분석하면 서울(20.04%)과 경기도(23.7%)지역인 주요 도시권에 상당수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미국의 중심도시인 뉴욕시내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9·11 테러 사건에서 보듯이 만약 한국 내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타 지역보다 테러리즘의 위협에 가장 취약하다.

[표 4-4] 전국 시도별 인구비율 분석 (2012년 11월 기준)

행정기관	총 인구수	인구비율 (%)	행정기관	총 인구수	인구비율 (%)
전 국	50,930,805	100	세종특별자치시	111,191	0.22
서울특별시	10,205,843	20.04	강 원 도	1,539,116	3.02
부산광역시	3,539,273	6.95	충청북도	1,565,188	3.07
대구광역시	2,507,910	4.92	충청남도	2,026,849	3.98
인천광역시	2,840,308	5.58	전라북도	1,873,561	3.68
광주광역시	1,470,669	2.89	전라남도	1,908,834	3.75
대전광역시	1,524,566	2.99	경상북도	2,697,569	5.30
울산광역시	1,146,555	2.25	경상남도	3,318,202	6.52
경 기 도	12,071,878	23.70	제주특별자치도	583,293	1.1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검색일: 2012. 12. 24), 필자 재정리

64) 이태윤, 전계서, pp.400~402.

핵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국내의 현실은 취약성이 너무도 크고 광범위하다. 그 취약한 요소로써 도시에 밀집된 인구, 집중화된 교통과 통신시설, 수많은 정수장이나 다양한 가스 저장시설 등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테러에 대한 대비체제도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테러리스트들은 목표 지향적이며 합리적인 행위를 추구한다. 공포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을 의도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핵심이다. 상징적 가치를 고려한 목표의 선택은 이러한 전술의 합리성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수단적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를 취하기 때문에 테러리즘이 정치집단의 전술로 이용되는 것이다.⁶⁵⁾

[표 4-5] 수도권 지역 테러목표 선호도 순위

목표 특징	국회	서울역	중앙우체국	서울대학교	에버랜드
계	30	24	14	13	10
1) 노출성	5	3	0	2	1
2) 중요성	3	4	1	1	0
3) 상징성	5	0	0	0	0
4) 정당성	5	3	2	1	0
5) 파괴성	3	4	4	1	1
6) 점유성	4	4	2	3	3
7) 접근성	1	1	1	1	1
8) 용이성	4	5	4	4	4

1: 낮음 ~ 5: 높음

출처: 이태윤, 전게서, p.405.

나. 고도화된 교통체계와 대중매체의 발달

2005년 7월 7일, 런던 중심부의 4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음이 발생했다. 맨 처음 폭발은 런던 중심가의 리버풀 스트리트 역과 알드게이트 역

⁶⁵⁾ 이태윤, 상계서, p.399.

사이이다. 곧이어 런던 북부 러셀 스퀘어역과 킹스크로 역 사이의 지하철 구내, 에지워드 로드 역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났다. 마지막 폭발은 런던 중심가 태비스톡 스퀘어에서 발생했는데, 2층 버스가 날아갔다.

이 테러 사건으로 56명의 사상자와 7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로 자칭하는 비밀조직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테러 사건은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사건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다.

즉,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했고, 복잡한 출근 시간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자살 테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영국 경찰 수사결과 자살 폭탄테러를 저지른 4명의 범인은 파키스탄계 영국인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국민이 그토록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영국 국민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7·7 런던 지하철 역 테러사건에 사용된 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이집트 생화학자가 이집트 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배후 조정 용의자 1명이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 또한 발달된 도심지역을 오고가는 시내버스와 전철역 그리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KTX까지 하루에 수십만 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와 교통수단에 대해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을 도발 시 일반 시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속출하는 교통체계의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나 있다. 더불어 대중매체인 신문사나 일반 방송매체, 특히 일반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그 피해의 현장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전파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목표로 하는 공포의 확산도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원전시설의 취약성

지난 외교통상부는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35.6%가 “우리나라에서 핵·방사능 테러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중 핵 테러리즘 유

형으로는 15%가 ‘북한에 의한 공격 테러’를 꼽았고, ‘핵·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파괴나 오작동 유도 및 핵폭탄 테러’ 등이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⁶⁶⁾

9·11 테러 사건을 자행했던 알 카에다의 공격은 미국인들에게 도심지역 내에서 초국가적인 테러공격을 받은 뒤 얼마나 극단적으로 취약한가를 일깨워 준 대표적인 사례로써 한국 또한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보면 결코 다른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인 한국 내에서도 원전시설에 대한 핵 테러리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첫째, 외부요인의 취약성으로 해상에서 접근하는 의심선박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2011년 10월 5일,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영광원자력 발전소 바로 앞까지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접근했다가 검거되었다. 원전시설은 보안시설 구역으로 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이 출현 시 반경 1마일 이내 선박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보안 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중국인들은 검문 없이 발전소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해상경비에 취약성을 드러낸 사실이 있었다.⁶⁷⁾

둘째, 적 저공 침투 시 원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레이더망의 구축 부재이다. 예를 들면 전남 진도 권역 내인 영광원전과 무안공항, 경남 양산 권역 내인 고리원전과 부산항에서 고도 2,000피트(약 600m) 이하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군부대의 방공 레이더가 추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뚫릴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감시불능지역인 셈이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해 후방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200여대의 저고도 침투용 AN-2기를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⁶⁸⁾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취약요인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1970~1980년대 준공된 노후기종으로 아래 [표 4-6]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 21기 원전시설 중에서 1978년 고리 1호기, 1983년 고리 2호기, 1983년 월성 1호기 등 9기가 1970~1980년대 준공됐다. 2011년 3월 11일, 후쿠

66) 한국정책방송, 2012. 2. 10

67) 조선일보, 2011. 10. 7. A12면.

68) 한국일보, 2010. 10. 6. A2면.

시마에서 방사능 유출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역시 1980년대 준공된 노후 기종이었다. 만약 노후된 원전시설의 가동에 사용하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후쿠시마의 원전시설 폭발과 같은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표 4-6]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용년수 현황 ('12년 12월 기준)

노 형	발전소	용 량	준공년도	사용년수
경 수 로	고리 1호기	590	1978. 4	34년
	고리 2호기	650	1983. 7	28년
	고리 3호기	950	1985. 9	26년
	고리 4호기	950	1986. 4	26년
	영광 1호기	950	1986. 8	25년
	영광 2호기	950	1987. 6	24년
	영광 3호기	1,000	1995. 3	17년
	영광 4호기	1,000	1996. 1	16년
	영광 5호기	1,000	2002. 5	10년
	영광 6호기	1,000	2002. 12	10년
	울진 1호기	950	1988. 9	23년
	울진 2호기	950	1989. 9	22년
	울진 3호기	1,000	1998. 8	13년
	울진 4호기	1,000	1999. 12	13년
	울진 5호기	1,000	2004. 7	7년
	울진 6호기	1,000	2005. 4	7년
	신고리 1호기	1,000	2011. 2	1년
중 수 로	월성 1호기	680	1983. 4	29년
	월성 2호기	700	1997. 7	15년
	월성 3호기	700	1998. 7	14년
	월성 4호기	700	1999. 10	13년

출처: 헤럴드경제(검색일: 2012. 5. 19), 필자 재정리

국내 원전시설의 사례를 들면 2012년 2월 9일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작업자의 실수로 외부 전원이 끊어지고 비상용 발전기마

저 고장 발생으로 블랙아웃(Station Blackout), 다시 말해 발전소 대정전이 된 상태로 고착된 결과 원자로 냉각수 온도가 36.5℃에서 58.3℃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의 온도는 21℃에서 21.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불과 12분 만에 벌어진 사고이다.⁶⁹⁾ 이 사례를 가상의 핵 테러리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테러리스트가 원전시설의 정상가동을 중지시켜 원전시설이 폭발 사고로 가장한 핵 테러리즘을 감행한다면 원전시설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망을 차단할 것이다. 이를 복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시설의 폭발 사건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2. 한국의 반핵 테러리즘 발전방안

한국의 대테러 정책은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⁷⁰⁾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오다가 1981년 올림픽 개최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테러 대비태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발생 사건과 북한이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였다.

가.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의 구축

정부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를 통해 대테러리즘 활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훈령에 따라 대테러리즘 정책의 심의·결정 및 정책시행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하에 대테러리즘 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대책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정책의 시행과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대테러리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외무, 행자, 법무, 국방 및 교통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관세청장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정부

69) 조선일보, 2012. 3. 21. A8면.

70) 정부가 1980년대초 테러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자행한 對南 테러는 상존하였지만,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는 최근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테러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김포공항 폭파사건, 대한항공 858기 공중 폭파사건 등 이들 사건은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 또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도 이 범주에 속한다.

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임무는 1) 국제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군사적 정책결정 보좌, 2) 대테러리즘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정부 각 부처 간 및 관계기관의 대테러리즘 업무를 조정, 3) 심의·결정된 테러리즘 정책의 시행을 감독, 4) 사건발생 시 대응조치를 지휘 통제하는 것이다.

대테러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관계부처의 국장급 실무자가 위원이 된다. 임무는 1)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시행, 2) 정보의 교류 및 관할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업무수행 기능을 조정·협조, 3) 대테러리즘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 등이다.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리즘 정책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 내에 대테러리즘 전담기구를 운영하였다. 외무부에서는 외무부 훈령 제142호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 처리를 위하여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본부와 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내무부는 내무부 훈령 제710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교통부는 교통부 훈령 제725호에 따라 항공 및 해상 테러에 대비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항공 및 항만에서의 테러리즘 예방과 저지를 위해 안기부의 공항 및 항만 보안과장이 의장이 되는 공항·항만 안보 대책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상팀, 특공대 및 지원팀으로 구성되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대테러 작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특공대가 편성되어 있고 국방부 산하에 대테러 특공대가 편성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⁷¹⁾

미국은 9·11테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NSC) 수준의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신설하였다.⁷²⁾ 또한 ‘국토안보부’(Office of

71) 이태윤, 전계서, pp.404~406.

72) 이 기구는 대테러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과 보좌하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

Homeland Security)을 새로이 창설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발생 시 이를 종합하여 판단, 부처별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통합조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대책회의 중심의 회의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국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상설협의기구로 되어 있어 테러대책회의 기구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각 부처별 테러대응에 대한 유기적인 테러대응 활동이 제한되고, 전문담당 인력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 시스템의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표 4-7] 통합형 대응 시스템 구축 ‘안’

구 분	테러대응 ‘컨트롤 타워’ 설치	테러 전문 인력 도입
한 국	· 20개 부처의 테러 사건 분야별 주무부처가 테러 관련 업무를 처리 ※ 통합된 주 통제부서 부재	· 테러 담당 공무원의 테러 관련 업무를 한직으로 인식 ※ 테러 관련 전문가 부족
미 국 ‘안’	·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대테러 주 기능 담당	· 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 · 현대적, 유연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

출처: 권정훈, 전게서, pp.158~161. 필자 재정리

나.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9·11 테러 사건이 발발한 직후인 2001년 11월 테러방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테러 용의자의 출입국·금융거래와 통신이용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16대 국회활동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됐다. 17대 국회 때도 논란만 거

조정 및 정책개발을 시행한다.

됨되다 결국, 국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2008년 10월 ‘국가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과 2009년 4월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⁷³⁾

일상적인 테러방지활동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대테러센터가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인데다 센터장 역시 국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표 4-8] 대테러활동 기본법 쟁점

쟁 점	찬 성	반 대
국정원장 소속 대테러센터 설치	실질적으로 테러업무 총괄은 국정원에 전담기구 설치가 바람직	업무중첩, 국정원 권한집중 심화 우려, 정보공유 공조가 바람직
대테러활동에 대한 폭넓은 규정	테러의 형태는 다양화· 다변화되어 대테러 시 활동 범위 확대	개념이 불명확해 누구나 테러용의자 지명 등의 인권침해 소지
국방부장관이 테러진압 위해 군 동원 이후 사후통보 가능	테러진압은 신속성이 중요	계엄상태와 동일한 군 출동은 국무회의 심의사항
구속기간 연장 (예방적 구금)	일반 범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시간이 필요	인권침해 우려
감청요건 강화	예비·음모단계 수사 필요	인권침해 우려

출처: 한국일보, 2010. 5. 13. A4면, 필자 재정리

한국에서 국가 안보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73) 이종영(2010), 「국가 대테러시스템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국가정보원), pp.34~38.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고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국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⁷⁴⁾

결국 한국은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포괄적 규제를 위한 단행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테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즉 국가안보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록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보다는 오직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대테러 대응체계의 구축과 국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

다. 테러경보체제 도입 및 시행

테러경보는 테러발생 확률과 테러의 강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테러위협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상황에 미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의 경보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테러경보는 모든 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테러뿐 아니라 재난이 예상될 때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테러경보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된 정보수집체계와 정보분석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일원적이고 효과적인 경보발령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테러위험도에 따른 경보를 Green(저위험단계), Blue(주의단계), Yellow(상승단계), Orange(고위험단계), Red(급박단계) 5단계로 분류하여 행정부 산하 기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핵 테러리즘의 목표물은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심

74) 이태윤, 전계서, pp.418~420.

지역, 중요 열차역 혹은 버스 터미널, 중요 관공서, 대형 백화점, 그리고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이 될 수 있다. 테러리스트가 이들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을 국내에서 취득하거나 또한 외국으로부터 불법 밀수하여야 한다. 밀수된 방사성물질의 운반 경로를 판단하면 국내로 반입, 도로를 이용한 운반, 목표 건물로 유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중방어적 개념 적용이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해 다중 방어적 개념을 적용하여 최적의 방서선 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⁷⁵⁾

라.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정보역량의 강화

테러가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수의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테러정보 공유가 절실하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140개국의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테러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대규모 무차별 대량살상을 구사하는 국제테러리즘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테러단체에 대한 예산, 인원, 기술, 정보 등의 지원을 금지시키고 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정보공유를 향상시키며, 테러발생 시의 책임규명과 보복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련의 테러방지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⁷⁶⁾

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원전시설 재난관리

한국 내에서 핵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핵 테러리즘 대응팀

75) 광성우 외(2009), 「방사선방어학회지-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기술 현황 및 국내 탐지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p.118.

76) 이태윤, 전계서, pp.426~430.

을 운영하고 원자력 발전시설 안전 등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이 위원회가 설립된 배경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되어 원전시설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는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2월 24일부터 방사능테러상황실과 특별대응반을 운영을 시작하였다. 군부대와 연계하여 김포공항 내에서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된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⁷⁷⁾ 따라서 지속적인 핵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민·관·군과 연계한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NSS)

가. 핵 안보 정상회의 탄생배경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핵 테러리즘의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제 핵 안보⁷⁸⁾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떠오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국제안보 분야 최고 위급 포럼인 핵 안보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핵군축, 핵 비확산, 핵 테러리즘의 예방 이 세 가지를 21세기의 안보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핵무기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77) 서울신문, 2012. 3. 23. 16면

78) ‘핵군축’과 ‘핵 안보’의 차이점: 핵군축(Nuclear Disarmament)과 핵 안보(Nuclear Security)는 통제대상이 다르다. 핵군축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줄여나가자는 것이고, 핵 안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테러집단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개념이다. 핵확산은 핵물질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추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매일경제, 2012. 3. 28. A4면.)

나. 서울 NSS의 성과

서울 NSS는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53개국, 4개 국제기구 등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과 비당사국, 서방 국가와 비동맹국가, 원자력 선진국과 개도국 등 상황이 각기 다른 다양한 국가들이 참석했다.

핵물질 처리는 한 나라 주권의 영역으로 53개국 정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하우스 기프트’(house gift: 집들이 선물)인 국가별 공약실천으로 핵무기 2만개 분량의 핵물질을 줄이겠다는 국가 간의 공동의 약속을 확인한 계기였다.⁷⁹⁾

서울 NSS의 국제적인 성과는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⁸⁰⁾

첫째, 핵 안보 레짐의 강화 측면이다. 서울 NSS에서 핵 안보를 강화하고 핵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키며, 핵물질의 관리를 확실하게 하자고 합의함으로써 핵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넓은 공감대를 구축하였다.

둘째, 테러리스트와 불법세력이 획득할 수 있는 핵물질, 즉 HEU와 플루토늄의 양을 감축시키거나 폐기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물질 70여 톤을 감축한다는 약속을 했고, 민수용 핵물질을 가진 모든 국가들은 2013년 말까지 폐기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서울 NSS를 통해 한국은 세계적인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세계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높은 협상력과 의제 주도력을 보임으로써 외교력을 세계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핵 비보유국 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모범국가인 중견국가로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비동맹권 국가, 원자력발전 국가와 비발전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들에 대하여 준비 기간과 정상회의에서 높은 조정력을 보임으로써 내용이 풍부하고 충실한 서울 코뮈니케를 만들어 냈다.

핵 안보를 주제로 한 서울 NSS의 주요 핵심주제는 ‘핵 테러리즘 방지에 가장 중요한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⁸¹⁾과 플

79) 동아일보, 2012. 3. 22. A3면.

80) 한용섭(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합참), pp.22~24.

81) 천연 우라늄에 0.7%밖에 없는 U235(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한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U235가 20% 이상이면 HEU로 분류한다. U235의 비율이 3~5%면 원전의 연료로 쓰이지만 90% 이상이 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

루토늄의 감축'이라는 핵물질의 최소화 등을 골자로 '서울 코뮌িকে(정상 선언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회의문건은 워싱턴 코뮌িকে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 5가지의 특징과 성과를 안고 있다.⁸²⁾

첫째, 워싱턴 코뮌িকে와 달리 서울 코뮌িকে 자체 내 11개 분야⁸³⁾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핵 안보 시행 관련한 중요시한을 설정했다.

① 2013년에 IAEA 주관 핵 안보 국제협력 간 조정회의 개최, ② 2013년 말에 HEU 최소화에 관한 국가들의 자발적 공약, ③ 2014년에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셋째, '원자력 안전' 문제를 핵 안보 의제와 일정부분 연결시켰다. 본래 자연재해나 기술적 고장 등에 기인한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사안이지만, 2011년 3월 자연재해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를 계기로 원자로의 안전문제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핵시설 파괴와 유사한 점에서 비롯되었고, 사용한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강화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넷째, 워싱턴 NSS에서 미진했던 '방사능테러리즘' 방지 조치들이 서울 NSS에서 구체적으로 강구되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는 원료물질 획득 및 폭탄제조가 용이해 핵 테러리즘 보다 피해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 심각성이 크다. 1995년 출범한 IAEA 국제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출범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핵물질 혹은 방사성물질의 도난, 분실 신고의 약 2/3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것이며, 2011년 후쿠시마에서 보듯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은 핵 테러리즘에 버금가는 사안이었다.

다섯째, 워싱턴 코뮌িকে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관련 운송보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울 코뮌িকে는 핵과 방사성 물질의 국내·국제 운송 시 보안강화를 새롭게 포함하였다.

서울 코뮌ি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4-9]와 같다.

HEU는 연구용·의료용으로도 널리 쓰인다.

82) 정은숙(2012), 「'핵안보정상회의'(NSS)프로세스와 한국」, (세종연구소), pp.11~13.

83) ① 국제 핵 안보체제, ② IAEA의 핵심역할, ③ 핵물질, ④ 방사성물질, ⑤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 ⑥ 운송보안, ⑦ 불법거래, ⑧ 핵감식, ⑨ 핵 안보 문화, ⑩ 정보보안, ⑪ 국제협력

[표 4-9] 서울 NSS의 코뮌니케 주요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조 항
국 제 핵 안보체제 · IAEA 역할	· 핵 테러 대응에 관한 국제규범 공조체제에 대한 IAEA의 중심역할이 중요 · 2014년 한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표 촉구	1~3항
핵물질 · 방사선원	· 미사용 시설 내 고농축 우라늄(HEU)을 제거 및 처분 등 사용 최소화를 장려 ·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목적의 원자로 원료를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을 장려 * 예) U-Mo(우라늄 몰리브덴 합금) 연료사업 · 의료용 고준위 방사선원 관련 국가등록시스템 설립 등 제안	4~6항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고려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간 상관관계는 IAEA 중심으로 역할수행을 명시	7항
운송보안 · 불법거래 · 핵 감식	· 핵 · 방사능 물질의 국내외 운송 시 보안 강화 내용을 신규 반영 *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 · 탐지 · 대응하는 역량개발이 필요함을 언급 · 핵 감식역량을 강화, 불법 거래되는 핵물질의 출처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억지 · 핵 감식분야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 격차가 큰 영역임을 감안해 국제협력 강조	8~10항
핵 안보문화 · 정보보안	· 민간용 원자력 시설 증대에 따른 조치 ·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문제도 언급 *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핵 안보문화를 증진 * 과학계 · 산업계 · 학계 간 교류 활성화 명시	11~12항
국제협력	· 핵 안보 관련기술 ·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기술적 · 재정적 지원확대를 장려하는 내용 반영	13항

출처: 인터넷 조선일보, (검색일: 2012. 5. 7), 필자 재정리

서울 NSS는 북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프리즘 또한 북한을 향한 ‘무언의 압력’⁸⁴⁾으로써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가 핵 안보에 대한 도발위험을 억지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했다. 그리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불법 핵 거래 방지, HEU와 플루토늄 사용 중단·폐기 등 합의는 북한 핵 활동에도 적용된다. 서울 NSS 개최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범된 국가의 위상을 한층 격상한 계기가 되었다.

다. 서울 NSS의 한계

서울 NSS의 코뮌িকে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지 국제적인 공조 차원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제 레짐이다.

핵 군축, 핵 비확산, 핵 테러리즘 예방에 대해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코뮌িকে에 담긴 내용은 모두 권장과 권고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사용 시설 내 고농축 우라늄(HEU)을 제거 및 처분 등 사용 최소화를 장려하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목적의 원자로 원료를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까지 핵 안보 전반을 강제하며 확립된 국제법 체계도 없으며 특히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CPPNM)도 서명국이 55개국에 불과하고 협약 참가국 3분의 2(97개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효되지 않은⁸⁵⁾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 NSS를 통해 참가국들이 2013년 말까지 고농축 우라늄의 감축계획을 제출(코뮌িকে 제5항)하도록 되어 있지만, 핵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새롭게 발표된 내용 중 각국의 핵감축 규모를 언급하지 않아 각국이 추가로 밝힌 자발적 핵물질 폐기는 국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준수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핵 안보 정상회의는 국제 레짐 성격에서 보다 발전된 강제성을 부여한 국제규범으로써 발전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84) 서울신문, 2012. 3. 16. 6면.

85) 세계일보, 2012. 3. 28. 3면.

[표 4-10] 핵 안보 관련 법적 구속력 여부 국제규범

구 분	국 제 규 범
법적 구속력 有	· ‘핵 테러억제 협약’(2005) - 2007년 7월 발효 - 115개국 서명, 77개국 비준(2011. 9 기준) * 인명살상, 재산, 환경파괴를 목적으로 한 핵, 방사성 물질 및 장치의 제조 보유, 사용, 방출에 따른 핵시설 손상 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 · ‘유엔안보리 결의문 1540’(강제규범) (2004) - 2004년 4월 테러집단에 대한 WMD 확산저지를 목적으로 채택 - 비확산, 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 - 관련 국내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 제출 규정화 - 결의이행을 위한 ‘1540위원회’ 구성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2005) - 2005년 7월 개정협약 채택, 현재 미발효 - 서명국가의 2/3(97개국) 이상의 동의 미획득 - 각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및 국제이동중인 핵물질 관련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 이행 * 핵물질 도난, 횡령, 강제탈취 시도 및 관련 위협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법적 구속력 無	· ‘핵테러방지구상’(2006) · ‘G8 대량살상 무기확산 방지 파트너십’(2002) · IAEA 물리적 방호 국제지침(2011) · 기타: 핵안보 관련 다수의 양자, 지역, 다자 차원의 비정부 활동

출처: 세종연구소 「핵안보정상회의의 프로세스와 한국」, 필자 재정리

제 5 장 결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인류에게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기점이었다. 이는 현대 국제사회는 새로운 테러리즘이 확산된다는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 테러의 주체는 불특정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위해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핵폭탄과 핵물질 그리고 방사능 오염 등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었다.

핵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어떤 국가와 국민도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핵무기는 인류를 공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무기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특정목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 형태로 감행할 수 있으며 비국가 단체나 불법단체 즉, 불순세력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정치적인 폭력형태로 변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는 크게 알 카에다와 북한 그리고 국내 다문화주의 발달로 인한 자생조직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먼저 알 카에다는 9·11 테러 사건의 장본인 오사마 빈라덴이 창설한 테러조직 단체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등을 표적으로 하여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즉,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러 단체이다. 둘째, 북한은 1·2차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끊임없이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만 특수부대와 한국을 겨냥할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불법국가이다. 현재까지 정전이 되어 휴전하고 있는 시점임으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민족 1세대가 한국으로 이민하여 그들

의 2~3세대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타국제 자국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들의 2~3세대들은 법적으로 일반국민이지만 타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해 테러리즘을 도발할 자생조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대중을 목표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 테러에 대한 공포를 대중매체 수단을 통해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테러리즘을 감행시 테러목표의 무차별성을 드러낸다. 즉,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둘째,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셋째,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이 세 가지 유형 중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 사안을 결정하기는 난해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발생되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위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발생된다면 실로 막강한 파괴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방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는 방법 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 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개인, 집단, 국가를 벗어나 탈 국가적 성격을 갖는 국제 핵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특성을 재앙적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을 가정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국가적인 공황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설령 조잡

하게 제조된 핵폭탄이나 핵물질에 의해서 핵 테러리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도심지역 내에서 공황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과 제도적으로 반핵 테러리즘 관련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당시 추락한 피랍 항공기의 타격표적이 원자력 발전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어 이후 미국은 핵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의 21세기 위협은 비국가 테러용의자가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확보한다면 이는 곧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라함 엘리슨은 테러리스트들의 강한 의지, 핵무기 또는 기초적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의 입수 가능성, 핵무기를 국내로 밀수입할 수 있을 만큼 무한대의 방법이 열려 있는 한 핵 테러리즘은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의 국제사회를 고려해볼 때 10년 이내에 미국에 대한 핵 테러리즘 공격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핵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 입법화되고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비록 핵무기 억제가 오늘날까지 잘 유지되어 왔지만 이러한 무기는 이를 불순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단 한발로써 도시나 국가를 파괴하거나 손쉽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결국 핵무기가 국가적으로 확산될수록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위협은 증가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극단주의자들의 핵무기 테러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핵무기를 비롯

한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11 테러 사건 이후 핵 테러리즘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테러단체들이 9·11 테러 사건처럼 항공기를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키거나,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폭발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에 환기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잉여 방사능 물질의 추적, 제거 방안 등 일련의 대테러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테러행위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더욱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이 테러집단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어 위협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테러리즘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국제적 공조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정치외교·경제·정보 등 보다 포괄적 접근 전략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3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제2차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의의 중점은 핵군축, 핵 비확산, 핵 테러리즘의 예방이라는 쟁점을 21세기의 중요한 안보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각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 핵무기 감축방안에 논의하는 새로운 국제 핵 안보 레짐의 장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서울 NSS의 성과와 그 한계를 확인하였고, 주요 성과로써 핵 안보를 위해 ‘서울 코뮈니케’를 각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는 핵 테러리즘 방지에 가장 중요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감축 이행 제시는 서울 NSS에서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NSS가 갖는 한계로써 각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각각의 국가들이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핵물질

감축방안을 얼마나 이행할 것인지 국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각국 정상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 공조 노력의 시작이라는 시대적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을 정리하면서 국내 핵 테러리즘에 대한 원자력 시설의 방호능력과 국제 테러리즘에 대비한 관련 정책 등은 학제적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 그리고 사전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제한되어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한 분석은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고 유익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가. 국내문헌

- 김강녕(2009), 『남북한의 군사와 현안문제』, 경주: 신지서원.
- 김명자(2011), 『원자력 딜레마』, 서울: 사이언스북스.
- 김응수(201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서울: 아이.
- 강영숙 외(2008), 『테러리즘의 이해』, 진영사.
- 고성호 외(2011),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구춘권(2005),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서울: 책세상.
- 국방부(2012), 『집중해부 북한·북한군』, 한국군사학회
- 권정훈(2012), 『테러리즘과 테러대응 시스템의 재조명』, 경기: 한국학술정보.
- 그라함 앨리슨(2007), 『핵테러리즘』 김태우 박선섭(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류원호(2010), 『테러리즘에 대한 입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 CM MEDIA.
- 문광건(2003), 『뉴테러리즘의 오늘과 내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창용(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 이태운(2010),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
- 이희재(譯)(2001),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여영무(2006), 『국제테러리즘 연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정욱식(2012), 『핵의 세계사』, 서울: 아카이브.
- 조영갑(2012), 『세계전쟁과 테러』, 경기: 선학사.
- 조동준(2010),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비확산과 핵확산: 이론적 시각』, 서울: 오름.

나. 국외문헌

- Allison, Graham, *Nuclear Terrorism-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2005.
- Brito, Dagobert L. and Intriligator, Michael D,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centives to Acquire Nuclear Weapons," in Davis and Frankel, eds. *The Proliferation Puzzle* (London: Frank Cass), 1993.
- Cameron, Gavin, "Nuclear Terrorism : Weapons for Sale or Theft" *Foreign Policy Agenda* Vol. 0, (Washington, D, C), 2005
- Cornish, Paul, *The CRBN System: Assessing the threat of terrorist use of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 in the United Kingdom Chatham*, February, 2007.
- Daalder, Ivo. and Lodal, Jan, "The Logic of Zero: Towar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eign Affairs*, November / December 2008.
- Gertz, Bill, "N. Korea Threatens to Export Nukes Reprocessing Work Called Nearly Complete," *Washington Times*, 7 May, 2003.
- Johnson, Chalmer. "Perspective on Terrorism," in W. Laqueur(ed), *The Terrorism Reader*, New York: American Library. 1978.
- Kessler, Glenn, "U.S. Will Stand Firm on K. Korea," *Washington Post*, 16 February, 2004.
- Krasner, Stephen D(1983), "Strucy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t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London, Cornell Univ. Press).
-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 _____,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February 2003.

Quagham-Gormley, Sonia Ben, “An unrealized nexus?: WMD - related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rm Control Today) July / August, 2007.

Zakaria, Fareed, “The Rise of the Rest”, *Newsweek*, May 12, 2008.

2. 학위논문 및 보고서, 간행물

가. 국내문헌

김명배(2006), 「뉴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방사능 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김응수(2008),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원 박사논문.

김종수(2011), 「북한 핵 테러리즘 가능성 분석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원 석사논문.

곽성우 외(2009), 「방사선방어학회지-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기술 현황 및 국내 탐지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제34권 3호,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기술논문.

곽외용(2005), 「초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박재풍(2011), 「뉴테러리즘의 의미 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송은희(2011), 「자생적 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8호, 국가정보원.

오관섭(2006), 「뉴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이종영(2010), 「국가 대테러시스템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7호, 국가정보원.

- 이재은(2011), 「뉴테러리즘 환경 하에서의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상 분석」,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8호, 국가정보원.
- 이태운(2009),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미국학논집 제41집 2호.
- (2009), 「국제 핵테러의 발생가능성 고찰」, 육군대학 군사평론 402호.
- (2009), 「초국가적 위협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제3권 2호.
- 염상원(2010), 「북한 핵정책과 테러리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원 석사논문.
- 전성훈(2011), 「21세기 핵비확산 체제 개편과 한국의 원자력」,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은숙(2012), 「핵안보정상회의'(NSS)프로세스와 한국」, 세종연구소 통권 제71호.
- 조성일(2011), 「한국의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논문.
- 한용섭(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합참 제51호.
- 허 윤(2007),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테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3. 기 타

- 국민일보, 2012. 12. 6
- 매일경제, 2012. 3. 28
- 서울신문, 2012. 3. 16 / 3. 23
- 세계일보, 2012. 3. 28
- 조선일보, 2011. 10. 7 / 2012. 3. 21
- 한국일보, 2010. 5. 13 / 2010. 10. 6
- 한국정책방송, 2012. 2. 10

ABSTRACT

A Study on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by Nuclear Devices and Counter Measur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Oh, Hyun Chol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On September 11th, 2001, an occurrence of terrorism in the city of the United States made us suffer in pain. Not only caused death and lost, it also influenc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it effected the idea of terrorism world-widely.

This indiscriminated attack opened our eyes to broader possibilities in terror that was not introduced in the past such as nuclear weapon,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more.

No country is in safe zone from nuclear weapon and it distinctively relates to international-relationship. Nuclear weapon is a powerful device that could be used in un-oriented organization that focuses on destructing human race, meaning this could be used by negative force.

The study of nuclear weapon has to have limit before it dangers human race and there should be a prevention that could stop further terror in human history. The idea of terrorism could be caused by three main streams, North Korea, Al-Qaeda and people who are multi-cultured.

Al-Qaeda, a group of people who are following Osama Bin Laden's political idea hat caused the terror in September 11th of 2001. This organization targets not only United States, it also targets the whole world.

Secondly, North Korea continues developing nuclear weapon, North Korea focuses on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study and the new study in long-distance missile. They are targeting more than two million of special army force and South Korea. There are possibilities even though there is truce.

Third, There are people who grew up in multi-cultural family, where they have different perspectives in social struc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Even though, they are legal citizens of there country, they are diversely opened in different cultures and they grow up "multi culturally".

Terrorism targets innocent people. We could prevent this by spreading the idea of terrorism by mass media that tells people that terrorists would attack human race in any form of attack by using any kind of weapon.

International terror could be in three types,
First, Usage of captured nuclear weapon
Second, capturing nuclear weapon,
Third, lack of nuclear facilities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tion.

None of these three types of attack appeared in history. However, we shall not under estimate the power of any type of attack that includes nuclear.

Traffic, Human race, deceases would be caused by usage of nuclear and we need to have prevention that could protect human rights and safety. The answer is Anti-terrorism policy.

Anti-terrorism act would also prevent anti-nuclear terrorism with preventing terrorists being close to facilities where nuclear devices are held. This should be presented with stronger policy in Anti-terrorism.

Nuclear study was well developed in safety, there are terrorists who are looking for devices to threat human race and this device would cause great deal of lost. This means, more study we develop in nuclear field could also increase international terrorism.

March in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as held in Seoul named "World with no Nuclear Weapon".

The main topic of this summit was to minimize the stud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 supplement of the nuclear weapon and Anti-terrorism act. This was also mentioned in Washington D.C., in 2012, when the idea of minimizing the study was mentioned.

To be detailed,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showed limited possibilities. However, 'Seoul Communique' was selected with members.

Minimizing the usage of Uranium and Plutonium is the way to prevent the study, in same way, it only effects specific countries, meaning this law is not effective enough.

Could be our first step to a brighter future.

【keyword】 Nuclear Terrorism,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Seoul Communique

